

'9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통 일 부



목 차

〈'99년도 북한경제동향 요약〉	1
1. '99년도 경제시책 방향	17
2. 대내경제동향	22
가. 재정부문	22
나. 건설부문	24
다. 농림수산업부문	30
라. 광·공업부문	48
마. 수송·통신부문	62
바. 과학기술부문	65
3. 대외경제동향	68
가. 대외무역	68
나. 남북교역	79
다. 나진-선봉지대 개발	85
라. 대외경제협력	87
4. 종합평가 및 전망	106
※ 부록 : '99년도 북한경제 일지	109

'9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요약)

1. '99년도 경제시책 방향('99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시설」)

가. 모든 산업부문 생산 정상화 및 농업부문에 역량 집중

(경제부문 담당자들의 발언내용 : 조선신보 '99.3)

농업

- 감자농사혁명을 통한 먹는문제 해결 모색
-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농업구조 개선
- 이모작농사 확대

전기·석탄공업

- 전력생산능력 제고
- 10여개 대형수력발전소 건설
- 화력발전소의 기존 능력 유지

철도

- 철도수송량 2배 확대
- 철길보수를 통한 철길강도 제고

금속·기계공업

- 야금공업기지 시설과 능력, 생산잠재력 극대화
- 철생산에서 「우리식」 공정의 확립 및 체계화
- 고성능 기계 생산 증대

대외경제

- 중공업 우선 발전과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 노선을 적극 보강
- 수출품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수출원천들을 적극 탐구·동원
- 공작기계, 고품질 마그네샤크링카, 화학제품, 내화벽돌 등 2·3차 가공품의 수출 확대
- 인재양성사업 등 중장기적 대책 수립
- 특수경제지대 추가창설계획 및 관련 법제정비, 하부구조 설비등 투자환경 조성
 - 대외경제 중재법 채택(8.2)

나. 경제정상화를 위한 사상선동 강화

- 올해를 「총진군의 마지막 돌격전」, 「낙원의 해로 이어지는 해」로 설정

-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고취시키는 데 부심

※ 올해 구호 :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이어가자”

다.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외화벌이

- “자연부원의 대대적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밀친 마련” 강조

2. 대내경제동향

가. 재정부문 : 공장가동률·남북경협 증대로 재정수입 다소 호전

- '94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4.7~9)하여 '98년 예산집행 결산과 '99년 예산안을 채택

※ '98년 예산 규모는 200억 1,521만 북한원으로 '94년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

- '99년 예산총액은 203억 8,172만 북한원('98년비 1.8% 증가)
 - 산업별로는 농업, 전력·석탄·금속·기계공업, 철도운수, 과학부문에 증액 편성

- 재정사업의 정상화 노력 강화
 - 재정규율 이완현상, 예산낭비 및 누수현상으로 인한 경제 운용의 난맥상 극복 노력 강조

나. 건설부문 :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건설사업에 치중

- 경제건설 실적이 전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
 - 평양-남포 고속도로, 10여개의 대규모 수력발전

- 그러나 정치사상적 상징물 및 소규모 단위사업이 여전히 많은 부문을 차지

- 건설실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회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는 못 미침.

다. 농·수산업부문 : 양호한 기상조건에 힘입어 곡물생산 증가

○ 양호한 기상조건과 국제사회의 비료· 농자재 지원에 힘입어 곡물생산량이 증가

- 금년도 곡물생산량은 전년수준(389만톤) 보다 8.5% 증가한 422만톤으로 추정

※ 북한 농업성 부상 김영숙은 FAO총회('99.11.17) 기조 연설을 통해 '99년도 곡물 총생산량을 428만톤(조곡기준)으로 발표

※ FAO/WFP는 '99.11.9 특별보고서에서 '99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347.2만톤(쌀 152.3만톤, 옥수수 123.5만톤, 감자 45.3만톤, 밀과 보리 24.1만톤, 기타 2만톤)으로 추산

○ 가축사육을 적극 권장

- 전국적으로 염소 사육전문의 축산작업반·분조가 2,300여개로 증가

- 토끼협회를 발족시키고, 토끼기르기 열성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초식동물 사육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

○ 양어사업에 주력

- 「잡는 어업」에서 자본이 적게 소요되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라. 광·공업부문 : 에너지난, 설비 노후화 등으로 공장가동률
저조

- 탄광에 새로운 채탄방법인 「수평분층식」 채탄방법을 도입·기자재 도입 등으로 석타생산이 소폭 증가
-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건설을 병행 추진하고 화력발전소의 유지·보수에 주력
 -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규모가 확대
 - ※ 평균발전능력이 작년의 7kW에서 100kW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설비투자는 주로 '내부예비'를 동원한 부분적인 개·보수 수준에 불과
 -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설비 보수와 새로운 생산공정 건설

마. 수송·통신부문 : 일부 항만·통신시설 보강

- 철도의 궤도전차화·전기화 사업 추진
 - 함흥~마천간 협궤철도 전기화 공사 착공
 - 사리원시 무궤도전차선 1단계공사 완료
 - 청진시 남청진·봉천동간 궤도전차화 공사 완공(7.2) 및 남청진·사봉간 궤도전차화 2단계공사 완공단계(11.3)

○ 도로망 확충·정비에 주력

- '98.11월에 착공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외에 4개의 지방 산업도로·관광도로를 건설·확장

- 나진·선봉시의 주요도로 정비

○ 나진·선봉시에 「국제통신센터」(7,000㎡ 규모) 착공

- 태국 Loxley 그룹의 투자로 건설

- 2001년 완공후 일반전화 교환 및 이동통신 업무도 취급 예정

○ 인터넷사이트 「조선인포뱅크」를 개설

- 대북투자·교역 관련 정보제공 업무 시작

바. 과학기술부문 :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부문 발전 강조

○ '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

○ '91.10 「전국 과학자대회」를 개최한 이래 8년만에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 개최

-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및 「첨단과학기술발전 중심과제」의 철저한 수행을 다짐

- 전자공학, 컴퓨터프로그램 등 첨단과학부문의 발전에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

○ 제10차 「전국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개최(9.21~28)

- 360여종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출품

3. 대외경제동향

가. 대외무역 동향 : 무역실적 저조, 남북교역 확대

○ '99년도 대외무역은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여 대외무역 총액이 전년실적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98년 무역 총액 14.4억달러)

○ 상반기중 대중교역이 18.2% 감소, 대일교역은 31.3% 감소하는 등 감소폭이 컸으나

- 하반기들어 식량·코크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무상지원 급증, 1차산품의 대중·일 수출증가로 감소폭이 크게 완화

○ 수출입 구조상으로는 대중국 수입의존도와 대일본 수출의존도가 각각 40% 내외로 압도적 1위

○ 남북교역은 '99년중 3.3억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비 50.2% 증가

- 반입 1.2억달러(전년비 31.98% 증가), 반출 2.1억달러(63.4% 증가)

나. 나진·선봉지대 개발 : 투자유치 실적 부진

○ 투자유치 및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 엠펜러그룹(홍콩)에 의한 호텔건설 계속 추진, 록슬리(타이)에 의한 국제통신센터 착공 외에 신규 투자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4월부터 원정리 자유시장 폐쇄 상태
- 나진-선봉지역은 노반공사 등 도로정비에 주력

다. 대외경제 협력 : 국제사회의 지원에 주로 의존

○ UN기구·NGO 및 개별국가 등 국제사회로부터 총 2억 1,110만달러 상당의 식량·의약품을 수원

- WFP(세계식량계획)는 총 1억 7,76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미국의 1억 6,070만달러 포함)
- WHO(세계보건기구) 등은 555만달러의 의료보건 지원
- FAO(UN 식량농업기구) 등은 농업구조개선에 240만달러 지원
- NGO는 366만달러 상당 의료장비 등 지원

- 그 밖에 개별국가 지원으로 미국이 씨감자 1,000톤, 취로 식량 7만톤 등을 지원하였으며
- 중국은 6월 김영남 방중시 식량 15만톤, 코크스 40만톤 지원을 약속, 이행 중에 있음.

4. 종합평가 및 전망

<1999년 평가>

- o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경제회생에 총력을 경주
 -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현저히 증가
 - ※ '98년 김정일의 공개활동 총 70회중 8회, '99년 총 69회중 23회
 - 주요 생산단위에 군인들을 투입하여 생산력 증대 도모
 -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등 주민 노력동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o '99년 북한의 경제상황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농수산업 및 건설부문에 힘입어 소폭으로나마 플러스성장으로 반전
 - ※ 총리 홍성남은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비 20% 증가하고 4,000여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였다”고 발언('99.9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인터뷰)

※ 외무상 백남순은 “북한경제가 '99년부터 회복기에 진입하였다”고 언급('99.9 각국 외상 면담시)

○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는 주로 유희노동력을 활용한 건설부문의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의 결과로서, 침체된 실물경제가 회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

- 산업비중이 높은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전년도 생산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

- 전년도(14.4억불)보다 대외무역규모도 감소

- 이에따라 여전히 식량난·에너지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무상지원에 의존

※ '95년이래 외부로부터 연간 2.5억~3억달러 규모의 식량·에너지 수 원 계속

<2000년 전망>

○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87~'93)이후 아직까지 새로운 경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시기적으로 당창건 55주년을 맞는 올해가 경제 청사진 제시의 적기가 될 수 있으나

- 경제상황 면에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대외신용도 저하 등으로 차기 경제계획 수립이 어려운 입장

○ 대내적으로는

- 2002년(김정일 60회생일)까지 핵심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문별 당면목표 추진을 통해 경제기반 다지기에 주력할 전망

※ '98.10 '김일성 시정연설 관철을 위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2002년까지의 당면 경제목표를 제시

○ 대외적으로는

-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지원을 경제력 회복에 이용한다는 기본 전략하에
- 우리기업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외 투자유치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 경제개발의 전기마련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가입, 대미·일 관계 정상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99년도 북한경제동향

1. '99년도 경제시책 방향

- 북한은 '99년도 신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당해 연도의 경제시책 방향을 제시했는 바
 - '98년은 「우리식 정치체제」가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 강행군 승리의 기반이 마련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 '99년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힘차게 이어가자」는 구호 아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안정·향상시킬 것”을 강조하였음.

< 공동사설 제목 >

'97년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98년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
'99년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 북한이 '99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경제부문 시책방향은
 - ① 「먹는문제」 해결 ②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증대 ③ 자연부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밀천 마련 ④ 인민소비품 생산 보장 ⑤ 경제적 실리보장, 규율과 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등을 중심과업으로 설정하였음.

- 특히 먹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에 전국가적인 힘을 넣어” 감자농사 혁명, 농업구조 개선, 이모작 확대, 종자혁명, 토지정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전력과 석탄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대규모 수력발전소의 조기 조업,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강화, 굴진과 갱건설을 통한 ‘탄밭’ 확대 등을 강조하였음.
- ‘99년 「공동사설」은 별다른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이어가자”라는 구호를 강조하는 한편,
-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2의 천리마대진군」 등 주민노력동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은 김정일의 성진제강 방문(‘98.3.14)을 계기로 제시된 ‘새로운 천리마운동’이 공식화된 것으로, 11월에는 각지의 ‘노력혁신자’ 등 6천여명을 소집하여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공동사설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1.4)’를 시작으로 각 시, 도 및 공장·기업소별 「공동사설」 관철을 위한 썰기모임을 개최
- 또한 김부자 현지도 기념회와 공장·기업소 창립 기념보고회를 빈번히 개최하여 경제선동의 계기로 삼았음.

- 올해 12월 17일 현재까지 개최된 김부자 현지도 기념회는 59건이며, 공장·기업소 창립 기념보고회는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농근맹」, 「직총」, 「여맹」 등 당 및 외곽단체들과 부문별 일꾼 열성자 회의를 자주 빈번히 소집하여 경제관리의 정치조직화에 주력했으며

- 이들 행사를 통해서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등 사상무장을 강화함으로써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음.

< 올해 당 및 외곽단체 회의 개최 현황 >

시 기	내 용
1.14~15	전국 농업부문일꾼 열성자회의
1.17	국토환경보호 및 연관부문일꾼회의
1.26~27	전국 근로단체 사상사업부문 일꾼회의
2.3.	「농근맹」 중앙위 제7기 35차 전원회의
2.22~23	「여맹」 중앙위 제30차 전원회의
2.25	「청년동맹」 중앙위 제16차 전원회의
2.26~27	「직총」 중앙위 제39차 전원회의
3.16	전국 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3.19~20	전국 축산혁신자회의

시 기	내 용
3.28	전국 리농근맹 위원장회의
4.1	전국 근로단체 일꾼회의
4.27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2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5.3~4	전국 우편통신부문 열성자회의
5.7	전국 여맹 누에치기 열성자회의
6.12	「청년동맹」 중앙위 제17차 전원회의
6.19	김정일 당사업 개시 3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8.24	「직총」 중앙위 제40차 전원회의
8.26	「여맹」제5기 31차 전원회의
9.11~16	「농근맹」 경제선동 경연대회
9.29~30	「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대회
10.1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2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10.8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10.30	「청년동맹」 중앙위 제18차 전원회의
11.3~4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12.4	「농근맹」 중앙위 제7기 36차 전원회의
12.2~3	전국 근로단체 교양모범일꾼대회
12.23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o '99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은

-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98년도 10월에 채택된 「내각결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 식량·전력·석탄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을 통한 생산활동 정상화와 인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목표하에서
- 감자농사를 중심으로한 농업구조의 개선, 자연자원 개발을 통한 외화벌이 사업 추진 등 현실적·실리적인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 경제계획체계 복원을 통한 경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파괴된 중앙계획경제부문을 정상화하는데 두었음.

2. 대내경제동향

가. 재정부문

- 북한은 '94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를 개최(4.7~9)하여 '98년 국가예산 집행결산과 '9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데 이어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공포 하였음.
- '98년 국가예산 규모는 200억 1,521만원(90억 978만달러)로 '94년 414억 4,215만원(191억 8,618만달러)에 비해 절반이하 (48.3%) 수준으로 급감하여
 - '94년이후 '97년까지(3년간) 북한의 재정규모는 연 평균 21.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 항목중에서는 유일하게 군사비 비중만을 14.6%로 발표하였는 바, '98년 예산상 군사비 규모는 29억 2,222만원 (13억 2,828만달러)임. .
- '99년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3% 증가된 203억 8,172만원(93억 9,250만달러)으로 편성되었으며,
 - 인민경제비 지출 증가율에 나타난 '99년도 중점사업부문은
 - 농업, 전력·석탄·금속·기계공업, 철도운수 및 과학기술부 문으로

- 이 부분의 예산증가율(10~15%)은 전체 예산 증가율(1.8%, 지출기준)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 중공업과 사회간접자본부문에 대한 북한당국의 집중적인 투자와 이에 따른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음.
- '99년 지출예산 총액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14.5%로 예산상 군사비는 29억 5,535만원(13억 6,191만달러)이나,
- 과거 실질군사비 지출비중인 30%를 적용하는 경우 '99년도 군사비 규모는 총 61억 1,452만원(28억 1,775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내각에서 '99년도 국가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하는데(민주조선, 4.29)
- 내각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정상화와 예산수입계획의 철저한 수행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자금 보장 △지방예산제 방침의 철저한 관철 및 지방예산 수입증대 △재정규율·재정검열 통제강화 등임.
- 이로 볼 때 '99년 북한의 재정부문은
- 그동안 만성적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정치선전목적의 낭비적 재정지출 증대외에도

- 재정규율의 이완현상의 확산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예산의 낭비적 누수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 재정사업의 정상화를 통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나. 건설부문

- o '99년도 북한의 경제건설 실적은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전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였음.
- o 특히 북한이 경제정상화를 위해서 전력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반영, 중소형발전소 건설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경제 건설 실적 추이 >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85건	94건	54건	31건	65건	36건	82건	47건	90건

o 시기별 건설실적을 보면

- 상반기 완공·조업실적은 37건이고 하반기 실적은 53건이며, 특히 4/4분기의 실적은 35건으로

- 정치적 상징물을 제외한 경제부문의 건설실적만을 보면 1/4분기 6건, 2/4분기 14건, 3/4분기 10건, 4/4분기 22건으로 건설실적이 4/4분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96~99년도 분기별 북한의 경제건설 실적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 계
'95년	5건	9건	7건	44건	65건
'96년	6건	7건	6건	17건	36건
'97년	8건	16건	13건	45건	82건
'98년	4건	9건	20건	14건	47건
'99년	12건	25건	18건	35건	90건

o 경제건설 대상별로 보면

- 정치선전 목적의 상징물 건설이 전체의 43.3%로 건수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 다음으로 전력공업 부문의 비중이 27.8%를 차지, 에너지문제 해결을 통해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려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평양-남포간 고속도로(약 40km)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농업 및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고 한 수 있음.

< 대상별 완공 조업 건수 >

대 상 별	완공·조업 건수	비 중
정치선전 목적의 상징물	39건	43.3%
농·수·축산업	7건	7.8%
광공업(전력부문 제외)	11건	12.2%
에너지(발전소)부문	25건	27.8%
사회간접자본	6건	6.7%
기 타	2건	2.2%
합 계	90건	100.0%

○ 올해 북한의 정치사상적 상징물 건설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 1/4분기 6건, 2/4분기 11건, 3/4분기 8건, 4/4분기 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분기별 정치선전물 건설 실적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 계
'99년	6건	11건	8건	13건	38건

- 이밖에 북한은 국토관리사업에 주력하여
 - 또한 관리총동원기간 동안에 5억 8,000만그루의 식수, 6,700여km의 도로와 1,600km의 강·하천 정리, 9,800여정보의 토지정리, 1,200여정보의 새땅 개간, 1,200여km의 생울타리 조성, 500여정보의 양어장 보수 작업을 하였음.

- 또한 강원도 토지정리사업('98.10~'99.4)을 통해서 총 3만 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정리하여 1,760정보의 새로운 논·밭 면적을 확보하였으며
 -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을 착수, '99년 가을부터 2000년 가을까지 도내 총 5만 5,000여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여 4,221.6정보의 경지면적을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음.

- 이로 볼 때, '99년도 북한의 경제건설 실적은
 -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건수나 규모면에서 작년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나
 - 아직까지는 비생산적인 정치적 상징물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 다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 희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99년도 주요 경제건설 실적 >

월별	건 설 실 적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산 유원지도로(약20km) 완공(1.18) ○ 신의주 화학종이연합기업소, 아황산소다 생산기지 1단계 건설 완공(1.24)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흥수리동력대학, 장진강발전소 퇴수탑 이용하여 수천kW의 발전소 건설(2.6)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산소열법 용광로 조업(2.14) ○ 산암천발전소 완공(2.15) ○ 용산1호발전소 새로 건설 조업(2.15)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토지정리사업 2단계 공사 완료(4.3) ○ 신미리에 연풍관리국 타조목장 1단계 공사 완공(4.15) ○ 12월5일청년광산 조업(4.23) ○ 복합미생물기술연구소 조업(4.26) ○ 황해북도 신계군-수안군-곡산군 연결 40여리 물길 수송관 건설(4.29)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제염소에 정제소금공장 건설(5.7) ○ 비류강 청년1호발전소 완공 조업(5.12) ○ 황해남도 해안연선에 조수력발전소 건설(5.27) ○ 위원임산사업소 양강1호발전소 준공(5.28)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28일공장 조업(6.18) ○ 사리원시,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건설(6.19) ○ 사리원시, 무궤도전차선 1단계공사 완공(6.19) ○ 제4수력발전소 건설사업소, 언제 마감공사 완성(6.27) ○ 개성시-영통사간 순환도로 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박물관-영통사, 용흥동-영통사(15.8km)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청진시 궤도전차 개통(7.2) ○ 평양 금성거리에 '충효의 대기념비 연생탑' 건립(7.9) ○ 초산군 송묘청년발전소 조업(7.13)

월별	건 설 실 적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남도 금야강발전소 가물막이 공사 완공(7.17) ○ 황해북도 수안군 언진산 발전소 조업(7.26) ○ 황해북도 신계 미루벌 율리청년저수지 준공(7.27) ○ 해산시 강구발전소 조업(7.27)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주지구 석탄지하가스 발생장·가스발전소 준공(9.7) ○ 성간군 성하3호발전소 조업(9.10) ○ 남포지구 대홍항 부두 조업(9.13)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강발전소 언제 준공(10.8)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명당내화벽돌 생산공정 조업(10.9) ○ 강원도 천내정제소금공장 조업(10.11) ○ 평안남도 북창군 정로양어장 2계단 양어못 건설(10.11) ○ 함경남도 금야군 광명성제염소 준공(10.12) ○ 함경북도 선홍식료공장 조업(10.12) ○ 황해남도 연안정제소금공장 준공(10.13) ○ 성천광산 장립1호발전소 준공(10.20) ○ 해주-용당간 도로 개건·확장 개통(10.21) ○ 은산군 장선강청년발전소 준공(10.21) ○ 개천시 개천체육관·개천경기장 개관(10.16) ○ 장풍군 양어장 건설(10.26)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진시 포항지구 '충성의 청진정제소금공장' 조업(11.15) ○ 함경북도 광덕언제공사 준공(11.21) ○ 함경북도 부령군 형제3호발전소 조업(11.23) ○ 함경북도 부령군 금강2호발전소 조업(11.16) ○ 청진시 직하발전소 조업(11.28) ○ 함경북도 부령군 금강3호발전소 조업(11.30)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경북도 부령군 금강5호발전소 조업(12.3) ○ 함경북도 부령군 형제2호발전소 조업(12.5) ○ 청진시 송평지구 소재 안전부 발전소 조업(12.13) ○ 함경북도 부령군 금강4호발전소 조업(12.17)

다. 농림수산업부문

[농 업]

- 신년초 발표한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의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에서
 - “농업생산은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면서 “농사에 전국가적인 힘을 넣어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 농업성 부상 한덕은 농업부문에서의 올해 과업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감자농사 혁명, 적지적작·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업구조 개선, 두벌농사 확대, 종자혁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다짐하였으며,
 - 농업부문의 과업관철을 촉진키 위해 「전국 농업부문일꾼 열성자회의」(1.14~15), 「농근맹 중앙위 제35차 전원회의」(2.3), 「전국 리농근맹 위원장회의」(3.28) 등 농업관련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였음.
- 또한 김정일은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현지지도(중앙방송, 2.10)를 통해서,
 - “농업생산을 늘리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토지정리사업을 잘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강원도 토지정리사업은 '98년말 1단계 공사에 이어 '99년 4월초 2단계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총 3만정보를 정리, 1,760정보의 논밭을 확대하였으며,
 - 10월에는 2000년 가을까지 4,222정보의 경지면적을 증대시킨다는 목표아래 평안북도에서 토지정리사업에 착수하였음.
- 또한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자증산 노력의 일환으로
- 우수한 감자종자의 생산을 위한 감자조직배양공장을 황해북도 신계군 미루벌에 건설하고,
 - 감자밭 재배면적을 4만 3천여정보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 동시에 경공업 과학분원 산하 4개연구소(강냉이연구소, 식료연구소, 발효연구소, 식료기계연구소)를 통하여 감자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
- 한편 북한은 '99년 들어 2.27 서해안 농촌지역에서 봄철 밀·보리를 심기 시작하였으며, 5.15 서해안 평야지대에서 첫 모내기를 시작하였음.

- 북한에서의 통상적인 벼 모내기 일정을 보면, 매년 3월중순 냉상모판에 볍씨를 파종하여 모를 기르고, 4월중 논갈이, 씨레치기 등 모내기 준비 작업을 한 후, 5월 초순 서해안 평야지대에서 모내기를 시작하고 있음.
- 올해의 경우 북한의 모내기가 평년에 비해 다소 늦어진 것은 북한이 식량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이모작 재배에 주력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임.

< 북한의 연도별 모내기 일정 >

구 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시 작	5.10	5.9	5.5	5.5	5.12	5.12	5.10	5.3	5.15
종 료	5.31	6.3	5.31	6.3	6.6	6.15	-	-	-

- o 북한은 6월과 7월 중순에 걸쳐 가뭄피해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고 연이어 보도하였음.

< 보도내용 종합 >

【 중앙통신 및 중앙방송 6.30 】

-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롯한 대부분지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가뭄과 고온현상이 계속
 - 6.1~6.28까지의 평년대비 강수량은 평양 27%, 평안남북도·황해남북도·강원도 25~34%, 자강도·함경남북도 50%
 - 6.26부터는 전반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평년대비 2~5℃ 상승

【 중앙통신 7.4 】

-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작물의 생육에 적지 않은 지장
 - 북한전역에서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가뭄피해를 이겨내기 위한 전투를 전개

【 중앙방송 7.5 】

- 서해안과 북부내륙지방에서 가뭄과 고온현상이 지속
 - 동해안지방에서는 6.28부터 흐린 날씨 계속 및 저온현상 발생

【 중앙방송 7.6 】 농업성 차린석 국장·중앙예보연구소 김문욱 실장 인터뷰

- 여러달째 계속된 가뭄으로 논벼의 생육에 막대한 지장
 - 산간지방보다 황해도·평안도 등 평야지대가 더욱 심각
- 일반적으로 7월 상순이면 장마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인데, 금년의 경우 대부분 지방에서 한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음.

○ 금년 봄철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현상은

- 지난 겨울 찬 대륙성 고기압이 예년에 비해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였고 한반도와 중국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북서 태평양 아열대지역의 고수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데다
-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함으로써 장마 전선의 북상을 억제한데 기인한 것임.

○ 이에 따라 올해는 장마전선이 6.16 한반도에 상륙한 뒤 남부 지방에는 잦은 폭우를 뿌렸으나

- 중부지방에는 북쪽에 위치한 고압대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여 대체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장마 전선이 동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장마가 사실상 종료되었음.

○ 그 결과 올해 평안도 및 황해도 등 일부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에 다소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 우리 기상청 파악에 의하면 북한당국의 '가뭄피해' 주장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 7.21 저녁 이후 한반도 일원에 내린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소낙성 강수가 북한 일부지역의 해갈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 7월 중순까지의 '가뭄상황'이 북한전역에 걸쳐 농작물의 생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7월 중순 이후 북한의 중앙방송은 장마철 피해예방대책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제5호 태풍 「니일」과 관련하여 해상경보(7.26)와 태풍경보(7.27)를 발령하고

- 중앙방송(8.5) 및 중앙통신(8.2, 8.9)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등 여러 부문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

< 보도 요지 >

【 중앙통신 8.2 】

○ 여러 지역에서 7.30 오후부터 8.2까지 예년에 보기 드문 많은 비가 내려 농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 개성시와 평안남북도에서만도 4만여정보의 농경지들이 침수되고 수천정보가 유실·매몰되었으며, 수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침수되거나 파괴되었음.

○ 평안북도 여러 지역들에서도 무더기 비로 1만 8,000여정보의 논밭이 침수되었으며, 1,000여정보의 농경지들이 매몰·유실되었음.

-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배천, 안악, 연안 등지의 수천정보의 논밭이 물에 잠기고 여러개소의 다리와 도로들이 파괴되었음.

- 또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평양시 상원군에서도 무더기 비와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입었음.

- 안주, 문덕, 숙천, 개천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들에서도 무더기 비로 수천정보의 농경지들이 침수되었음.

【 중앙방송 8.5 】

- 동서해안을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7월말부터 8월초 사이의 무더기 비와 태풍의 영향으로 큰물 피해를 많이 받았음.
 - 황해남북도와 개성시,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수십만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매몰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0정보의 토지가 유실되었음.

【 중앙통신 8.9 】

- 여러 지역에서 8월 3일 새벽부터 4일까지 내린 무더기 비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
 -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강원도에서만도 9만여정보의 농경지들이 침수되고 2만여정보가 유실·매몰되었으며 5만여정보의 농작물이 넘어져 알곡 수확고가 훨씬 감소될 것으로 예견

- 북한지역의 집중호우 상황을 북한방송 보도와 우리 기상청 자료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보면

- 7.31~8.4 기간중 북한의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지역에 200~700여mm의 비가 내렸던 것으로 분석됨.

※ 황해도 : 해주 219mm, 개성 702mm, 사리원 253mm

강원도 : 장전 372mm, 원산 304mm

평안도 : 평양 212mm, 양덕 185mm, 회천 109mm

- 북한지역의 기상피해 관련 국제사회의 발표내용을 보면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개성시에서만 42명 사망, 94명 중상, 3만 9,136명의 이재민 발생외에도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IFRC 개성분소의 집계 인용발표, 8.5)
 - 세계식량계획(WFP)도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와의 공동조사(8.3)를 통해 개성시 남부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하고 있음. (WFP 긴급보고서 31호, 8.6)

- 농경지 9만여정보가 침수되었다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 벼의 출수기(7월하순~8월중순) 침수 피해율이 30~40%인 점을 감안하면
 - 침수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약 8만여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며

- ※ 산출근거 : '98년도 북한지역 벼의 정보당 생산량=2.54톤
 - $9\text{만정보} \times 2.54\text{톤} = 228,600\text{톤}$
 - $228,600\text{톤} \times 35\% = 80,010\text{톤}$

- 2만여정보의 농경지 유실에 따른 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총 13만톤 정도일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9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이상기후와 수해로 인한 일부지역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전년수준을 상회한 422만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 '9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추정) >

(단위: 만톤)

계	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잡곡
422	163	192	13	31	23

※ FAO/WFP은 '99.11.9자 북한식량공급평가단 특별보고서에서 '99년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347.2만톤(쌀 152.3만톤, 옥수수 123.5만톤, 감자 45.3만톤, 밀과 보리 24.1만톤, 기타 2만톤)으로 추산

- 농업성부상 김영숙도 FAO총회 기조연설(11.16)을 통해

- '99년도 북한의 곡물 총생산량은 428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약 120만톤의 식량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정곡기준시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FAO/WFP 합동조사단의 평가 결과(347.2만톤)와 북한의 발표(342.4만톤)가 비슷

<북한 발표 곡물생산량 및 익년도 수요량 추이>

(단위 : 만톤)

연 도	곡물생산량	익년도 수요량	출 처
1995	349(244.3)	669(468.3)	「동북아시아 에큐메니컬 나눔과 연대회의」에서 한 강영섭 조선기독교도연맹위원장의 연설내용('96.1.29~2.2)
1996	250.0(200.0)	784(627.2)	큰물피해대책위 답화('97.2.3)
1997	268.5(214.8)	388.5(310.8)	정무원 농업위원회 차린석 농업국 부국장의 신화사 통신과의 인터뷰('98.1.21)
1998 ¹⁾	283.1(226.5)	402.2(321.8)	농업성 농산국장 차린석, 신화통신('98.11.24)
1998 ²⁾	305.7(244.6)		김영숙 농업성 부상 연설내용 역산결과
1999	428.0(342.4)	548(438.4)	김영숙 농업성 부상 : FAO 총회 기조연설 ('99.11.16)

※ ()내는 정곡기준 환산치 : 정곡 환산율 80% 적용

- 북한은 식량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을 적극 권장하여 왔는데 특히 금년들어서는
 - 전국적으로 염소 사육전문의 축산작업반·분조가 2,300여 개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 중앙 및 각 도·시·군에 토끼협회를 발족시키고, 각 도에서 토끼기르기 열성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초식동물의 사육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음.

※ 북한은 올해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풀먹는 짐승' 기르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

○ 북한이 이처럼 초식동물 사육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은

- 금년들어 김정일이 현지도('99.8)를 통해 토끼·염소 사육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라고 지시한데다
- '90년대 이래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초식동물이 곡물사료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 특히 토끼·염소의 경우 번식률이 높을뿐 아니라 내병성과 함께 월동에 강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외무상 백남순은 제54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각국 외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북한이 이미 농업개혁을 착수하였다고 발언하였는 바

- '98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농업부문 관련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 헌법개정('98.9)을 통해서 개인소유의 주체와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업근로자들도 텃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개방(제24조)하였으며, 부림짐승·건물 등에 대한 농민들의 소유 가능성을 제시(제22조)하였고,
- 내각결정('98.10)을 통해 협동농장원들의 농장관리에 대한 참여폭을 확대시켰으며,

- '99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적기적작·적지적작 원칙에 의한 농업구조 개선을 역설하는 가운데 감자농사에서의 혁명과 토지정리사업의 전군중적 운동 전개를 주장하였음.
- 또한 농업법 제정(중앙통신, 2.5) 및 '99.2 농촌테제 발표 35돌 기념 중앙보고회(2.24)를 통해서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실정에 맞는 농사를 강조하는 등 농업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들능 잇달아 발표하였음.

○ 백남순의 “농업부문에서의 개혁” 발언내용은

- 이미 북한이 변화된 농촌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취해 온 조치들을 국제무대를 통해 ‘선전’한 것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 과거 북한이 고수해 온 ‘주체농법’에 대해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임 업]

-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상 최종건은 새로 변경된 「식수절」(3.2)에 즈음하여 금년도 식수계획을 밝혔음.
- 최종건은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03,500여정보에 6억 6,500여만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으며,

- 20,000정보의 면적에 기름나무인 죽나무를 심어 매 군마다 200여정보의 죽나무림을 조성하여 필요한 기름을 해결하고
- 아카시아나무와 분홍꽃 아카시아나무를 심어 60,000여정보의 땀나무림을 조성함과 동시에, '인민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포플러나무, 청솔잎이깔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그동안 4.6을 「식수절」로 정하고 매년 각 지역별 식수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식수절」을 3.2로 앞당겼음.

○ 한편 북한은 '71년에 봄·가을 식수기간을 설정한 이래, 매년 이 기간동안 나무심기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왔음.

- 봄철: <평지>3월중순~3월말, <고지>4월초~4월중순

- 가을철: <평지>10월초~10월중순, <고지>7월중순~9월말

○ 임업성 부상 전명국은 8.10 「임업노동자절」을 맞아 중앙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 각지 임산사업소 노동자들이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발휘하여 나무들을 제때에 실어나르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 특히 양강도·강원도에서는 7개월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면서

- 김정일이 '92.8.10 전국임업부문 일군·근로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시한 과업을 무조건 관철할 것을 다짐하였음.

※ 김정일 서한 「임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의 주요내용은 산림자원의 적극적 탐사, 산림의 조성, 임업과학 연구사업 강화, 겨울철 통나무 생산 강화, 수로를 통한 목재 운송, 목재의 종합적 이용방안 개발 등임.

○ 이러한 임업성 부상의 발언은

- 원목생산부족으로 목재·제지·가구공장들의 정상조업은 물론, 탄광·광산건설 및 각지 건설공사용 자재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 임업부문 근로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은 전역에 걸쳐서 양묘장 조성사업에 주력하였음. (노동신문, 9.14)

- 이는 김정일 지시에 의한 것으로, 각 시·군별로 20~60정보의 양묘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양묘장 조성에 있어서 적지선택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일 뿐만 아니라
- 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상적 효과도 좋은 묘목을 계단식으로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이 이처럼 양묘장 조성에 주력하고 나선 것은

- 다락밭 개간과 함께 땔감마련을 위한 남벌로 인해 산림황폐화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상황속에서

- 단순한 식수뿐만 아니라 수종개량을 통해 산림보호와 함께 경제성도 고려한 조치로 보여짐.

[수산업]

○ 최근 북한의 양어정책 동향을 보면

- '97. 6월 김정일이 황해남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이래,
- 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식어종을 개발, 보급하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동시에 양어장 보수 및 건설에 치중하는 한편,
- 「수산법」('95.2),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97.7), 「물자원법」('97.8), 「바다오염방지법」('97.12) 등 관련 법규들을 연이어 제정하는 등 양어·양식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 왔으며
- '99.3월에는 「양어법」(총 6장 49조)을 채택하였음.

○ 북한의 양어법 채택은

- 유훈난, 어로장비의 노후, 어종의 감소 등 조업환경의 악화로 '90년대 들어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에서
- 지금까지의 「잡는 어업」을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시키라는 김정일 지시에 따라

- 도처에 방치되어 있는 연못·호수·하천 등을 이용, 사육부담이 적은 담수어종을 양식하여 주·부식으로 공급함으로써 식량난 극복에 일조하기 위한 법적 정비로 보임.

< 「양어법」(총 6장 49조) 요지 >

- 제1장(양어법의 기본) : 법의 사명과 양어사업 발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요구
- 제2장(양어수역의 관리) : 양어수역에 대한 적지조사와 분담, 양어수역토지의 이용에서 나서는 질서
- 제3장(물고기 자원의 조성) : 물고기 자원조성에서 나서는 절차와 질서
- 제4장 : 물고기의 생산과 보관, 공급에서 나서는 원칙과 절차, 방법
- 제5장 : 물고기 자원을 보호하는 데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
- 제6장 :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통제와 관련한 내용

- 김정일은 5월 군부대 양어장 시찰을 시작으로 양어부문을 4차례나 현지도하고 선전매체를 통해 양어사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양어부문 발전에 주력하였음.

- 김정일 현지도 : 인민경비대 제1216부대 양어장(5월), 나효진이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8월), 차주현이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8월), 제583부대 양어장(12월)

- 사업성과 선전 : 평남 북창군에 정로양어장 2단계공사 추진(10.11), 장풍군 6정보의 양어장 건설(10.26) 등, 평안북도와 평안남도가 올해 각각 658개, 2백개의 양어장 건설(11.18)하였다고 선전
 - 또한 11.18~20 기간중 인민대학습당에서 전국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개최하여 양어과학기술의 발전성과를 발표
- 한편 북한은 어부절을 맞아 동·서해의 수산사업소와 연안 양식사업소에서 수산물 생산에 주력하였는 바(중앙방송, 3.22)
- 특히 신포·통천·삼호·양화·홍원·송도원·원산 등 동해지구 수산사업소에서는 세소어업 또는 심해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에 주력하였으며
 - 운전·한천·정주·곽산 등 서해지구 수산사업소들에서는 밀물, 썰물을 이용한 안강망 어업에 치중하였음.

< 최근 북한의 수산물 생산 실적 >

(단위 : 천M/T)

연 도	'65	'90	'91	'92	'93	'94	'95	'96	'97	'98
생산량	723	1,455	1,200	1,140	1,090	998	1,052	876	650	627

○ 북한은 올해들어서 남양제염소 정제소금공장 건설·조업(5.7)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6개의 소금공장을 건설, 조업하였는 바

- 북한의 소금생산 실태를 보면

- '90년초까지는 서해안 지역의 귀성·남양·금성 등 8개 제염소를 중심으로 천일염만 생산하여 왔으나

- '91.7에는 북한 최초의 정제소금공장인 신흥화학공장 건설에 착수하여 공업적 방법에 의한 소금생산을 시도한 바 있으며

- 특히 '98년 5월 김정일이 광량만 정제소금공장 시찰시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도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정제소금공장들을 많이 건설하라”고 지시한 이래

- 함흥 일대를 비롯하여 숙천, 염주 등지에서 정제소금공장들이 잇달아 착공 또는 조업하였음.

○ 이처럼 북한이 소금공장 건설에 주력하는 것은

- 소금이 화학공업제품(가성소다, 탄산소다, 염산, 농약, 합성수지제조 등)의 생산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주민들의 식용소금 부족현상 타개 목적외에도 공업용 소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99년 소금공장 건설 실적 >

시 기	공 장 명	소 재 지
1999. 5 조업	남양제염소 정제소금공장	평남 숙천
1999. 5 조업	학소리 정제소금공장	평북 염주
1999.10 조업	광명성제염소	함남 금야
1999.10 조업	천내 정제소금공장	강원 천내
1999.10 준공	연안 정제소금공장	황남 연안
1999.11 조업	충성의 청진정제소금공장	함북 청진

라. 광·공업 부문

[부문별 동향]

(1) 광업 부문

- 연도중 북한은 각지 탄광에 새로운 채탄방법인 「수평분층식」 채탄방법을 도입하였음.
- 「수평분층식」 채탄방법(Top Slicing Coal Mining Method)은 석탄생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채탄작업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 △많은 종류의 채굴장비가 필요하다는 점 △적용할 수 있는 탄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 탄질 향상, 채수율 향상 등에 다소나마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북한은 「검덕광업연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종합기업소」 등에 제대군인을 배치하여 연·아연 및 석탄증산을 도모하였으며
 - ※ 「검덕광업연합기업소」는 함남 단천시에 소재한 북한 최대 규모 연·아연광산이며, 「2·8직동청년탄광종합기업소」는 평남 순천시에 소재한 비교적 규모가 큰 탄광임.
- 4.24에는 「12월5일청년광산」 개발을 완료하고 조업에 들어 갔는 바 평북도에 소재한 이 광산은 군창건 67주년(4.25)을 맞아 조업한 것으로 주로 인회석, 규사, 석회석 등 비금속광산물을 생산하는 군부관할의 광산으로 추정됨.

(2) 경공업 부문

- 북한은 경제난의 과정에서 열악해진 경공업 부문의 생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선전·보도함.
 - ※ 김정일의 생일에 즈음하여 「평양곡산공장」에서 평양시 주민들에게 공급할 식료가공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중앙방송, 2.8)
 - ※ 「안주신발공장」 능력확장공사 조업식이 진행되었다고 보도(중앙방송, 5.17)
 - ※ 「피복공업절」(9.29)을 계기로 피복공업부문의 성과를 선전(중앙통신, 9.20)

- 식료품가공공업은 주민들의 식생활 수준을 높이고 여성들을 '부엌일로부터 해방' 시킨다는 목표하에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으로 병진·발전시켜 왔는데
 - 「중앙공업공장」으로는 옥수수가공공장인 곡산공장이 각도에 1~2개씩 모두 20여개 있으며, 그밖에 밀가루가공공장(9개), 종합식료공장 등이 평양 등 대도시에 있고
 - 지방공장으로는 半工業的 시설을 갖춘 지방식료공장, 양정사업소 등이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있음.
 - 「평양곡산공장」은 「남흥애국곡산공장」, 「북창곡산공장」과 더불어 북한 최대의 곡산공장으로 '80년대 중반까지는 가공식품 생산이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식량난이 심화된 '94년부터 생산활동이 급격히 저하되었음.

- 북한의 신발산업은 제1차 5개년 계획기간(1957~'60)부터 피혁제 신발생산을 중심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이래
 - '60년대에는 합성수지 개발·생산에 따라 염화비닐을 이용한 사출식 신발을 생산하였으며
 - '70년대 들어 평양과 해주에 염화비닐신발공장을 건설하는 등 지방행정단위별로 신발을 생산·공급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1994~'96) 기간중에는 신발생산량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며 '95년 생산량을 1억 2천만 켈레로 설정하고 생산을 독려한 바 있음.

- 북한의 피복·섬유공업은 경공업부문 및 수출부문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공업부문으로
 - 북한의 피복·섬유공장은 4,000여개 경공업 공장의 18.3% 수준인 730여개가 북한전역에 분포하며,
 - 피복 등 섬유제품이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중반까지는 1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20~30%를 유지하고 있음.(현재 북한 최대 수출 품목)

< 최근 북한의 피복 및 섬유류 수출액 >

(단위 : 천달러)

구 분	'94	'95	'96	'97	'98
총 수 출	839,244	736,008	726,676	904,602	559,331
피복·섬유류 수출	198,783	233,668	210,464	184,171	148,097
비 중	23.7%	31.7%	29.0%	20.4%	26.5%

- 또한 북한의 피복공업 생산체계는 대규모의 「중앙공업」, 중소규모의 「지방공업」 및 각급 공장·기업소·협동농장내에 조직된 「가내작업반」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 「은하무역연합총국」 산하 봉제공장 등 주요 피복공장들은 내수용 의류생산보다 남한, 일본 등지로부터의 위탁가공 수출상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 내수용의류는 주로 가내 작업반에서 공장·기업소의 부산물, 폐설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8·3인민소비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3) 금속·기계공업 부문

- o 김정일은 3.30 「함경남·북도 공업부문사업」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는 바
 - 현지지도 기간중 김정일은 신흥기계공장, 단천마그네샤종합공장, 단천항전설장,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 6월5일전기종합공장 등을 시찰하고 각 공장·기업소 등에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 함경북도내 공업부문 실태에 대한 보고후 김정일은 현지에서 금속공업부문 「공장·기업소 일군 협의회」를 소집하고 각 공장·기업소 등에 과업을 제시하였음.
- o 김정일이 김책제철, 함북조선소, 성진제강 등 북한의 대표적 중공업공장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함경남·북도 지역을 선택하여 현지지도 한 것은,
 - 금속·기계공업 활성화 → 생산수단 공급증대 → 전반적인 생산 정상화 등 '중공업 우선정책'을 통해 당면 경제난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 금속·기계 등 중공업부문의 관리개선을 통해 침체된 제조업부문의 생산을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됨.

- 연도중 금속·기계공업부문에서의 실적은 다음과 같음.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효율이 높고 경량화된 새로운 중소형발전기와 터빈을 제작하였음.(2.5)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남포시 대안구역)는 북한 굴지의 중기계·설비생산기지이나
 - 10만kW급 발전설비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북한 최대규모의 중기계·설비 생산기지에서도, 3~100kW급에 불과한 소형 발전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전력난과 함께 북한 공업의 저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 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조업하였음.(2.14)
 -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남 송림시 소재)는 현재 북한에서 「김책제철」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강철생산공장(연간 생산능력 : 제철 113.4만톤, 제강 114.5만톤, 압연 74만톤)으로
 - 이번에 조업한 「산소열법 용광로」는 철광석과 함께 선철 생산에 투입되는 코크스의 일부를 석탄으로 대체하고, 산소 주입을 통해 석탄을 연소시키는 「미분탄취입기술」을 채택한 용광로로 추정됨.
-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기존 화물자동차들 보다 성능을 개선한 승리-58, 61, 자주-64형 등 자동차들을 생산하였음.(2.15)

- 「승리자동차공장」(평남도 덕천)은 북한 최대의 자동차생산 공장으로 1958년 체코 및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되어 화물자동차 「승리-58호」(2.5톤급)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시설확장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주된 생산차종으로는 「승리-58호」, 「승리-61호」 등 화물자동차들과 장갑차를 비롯한 각종 군용 차량 등이 있음.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설비를 대대적으로 정비·보수 하였음.(5.12)
 -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3호 소결로의 대보수와 소결로 대차의 정비와 보수, 정광직장의 2호 연속굴착기를 개조(중방, 5.12)하였는 바
 - 이는 '99. 3월 김정일이 함경남·북도 공업부문 현지도시 제시한 과업에 따른 것으로
 - 설비 보수를 통해 설비의 노후화와 부품 및 원료 부족으로 인한 잦은 조업중단을 방지하여 공장가동을 정상화함으로써, 금속·기계공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12월5일공장」이 새로운 형태의 공작기계인 '소형 팔볼반'을 제작하였으며(9.28), 「평양석재공장」은 새로운 '색인조석 평판'을 생산하였음.(9.30)
- 또한 「낙원기계연합기업소」는 굴착반경이 8.5m, 굴착깊이가 6.5m, 시간당 굴착능력이 100m³인 새로운 유압식 굴착기를 제작(10.31)하였음.

- 새로운 유압식 굴착기(포크레인)를 제작한 「낙원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 대표적 기계공장으로
 - 이번에 새로 제작된 유압식 굴착기는 최대 굴착반경, 시간당 굴착능력 등을 감안할 때 종전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성능이 향상된 중형급 굴착기로 보임.
- 한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전자공업성」을 신설(11.24) 하였는데
- 이는 첨단과학기술인 전자공업의 육성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인식아래
 - 열악한 수준에 있는 전자공업을 육성·발전시켜 2000년대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의 전자공업은 그동안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자력갱생원칙」에 따른 산업정책을 고수하여 온 결과
- 선진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필수적인 전자공업이 모든 산업분야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 특히 전자공업에서도 민수부문보다는 군수부문의 발전에 주안점을 두어옴에 따라 TV, 냉장고 등 민간 가전산업 부문은 과학기술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 북한은 전자공업을 “전자재료(반도체, 정밀합금 등), 전자회로요소(축전기, 집적소자 등), 전자장치(통신장치, 컴퓨터, TV 등)를 생산하는 기계공업의 중요부문”이라고 정의

(4) 에너지 부문

-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전력은 석탄과 함께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라며, “전국이 달라붙어 이미 건설중에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소들의 조업을 최대한 앞당기며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중소형발전소를 1년 내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는 김정일의 지적(노동신문, '99.1.18)에 따라 비교적 큰 규모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치중하면서
 - 연초부터 발전소 건설 성과를 선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독려함.

- 이에 따라 북한은 2.23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3호발전소를 착공하는 등 발전소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 금야강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 평안남도 덕천시에 1천~1만kW규모의 중형급 발전소인 덕천발전소를 착공(4.23)

- 예성강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착공을 하였으며.(4.28)
- 평양시 강동군 삼등지구에도 수력발전소를 착공하였음.(5.1)

< '99년도 발전소 건설 주요 실적 >

월별	건 설 실 적	시설용량 (추정)
2월	○산암천발전소 ○용산1호발전소	200~400kW 200~400kW
5월	○비류강 청년1호발전소 ○황해남도, 조수력발전소 건설 ○위원임산사업소 양강1호발전소	1천~1만kW 수백kW 1천~5천kW
7월	○초산군 송묘청년발전소 ○황해북도 수안군 연진산 발전소 ○혜산시 강구발전소	1천~1만kW
9월	○안주지구 석탄지하가스 발생장·가스발전소 ○성간군 성하3호발전소 및 임산2호발전소	100~500kW
10월	○성천광산 장립1호발전소 ○은산군 장선강 청년발전소	500~1천kW 500~1천kW
11월	○함북도 부령군 형제3호, 금강2호, 금강3호발전소 ○칭진시 직하발전소	500~1천kW
12월	○함북도 부령군 금강5호 및 형제2호발전소 ○칭진시 송평지구 소재 안전부 발전소 ○함북도 부령군 금강4호발전소	500~1천kW

- 그 밖에 안주지구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유연탄층을 활용한 가스발전소를 건설·완공(9.8)하였으며, 7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음.

- 연도중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주로 함으로써 중소형 발전소 건설 건수는 '98년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으나

※ 지난해의 경우 5,000여개를 건설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비 14%에 불과한 700여개를 건설

- 건설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 지역별 중소형발전소 건설 현황 >

(단위 : 개)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기 타	합 계
120	30	268	238	44	700

* 북한 보도자료 종합(노동신문, 민주조선 등)

○ 한편 북한은 화력발전소의 설비 보수·정비에도 주력하여 겨울철 전력생산에 대비하고 있음.

- 북한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70년대 이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재원 및 원자재 부족으로 진행중이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이 부진한 실정에 있음.

- 이에 북한은 연도중 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보다는 '내부예비'를 동원한 기존 발전소의 부분적인 증설이나 설비 보수에 역점을 두어 왔음.

※ 전기석탄공업성 동력자원개발국 김기욱 국장은 조선신보와의 회견('99.3.12)에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은 이제 하지 않고 기존능력을 유지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

○ 이 밖에도 황해남도 용진·강령·벽성군에서는 기존의 수문, 갑문 등을 이용하여 여러개의 소형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하였는 바(5.27),

- '98. 7월 김정일이 용진군을 시범단위로 하여 서해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조수력발전소 건설을 벌일 것을 지시함에 따라
- 황해남도는 용진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군들에서도 조수력발전소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 기존의 조수력발전소가 소규모에 불과하고, 향후 건설될 조수력발전소도 북한의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 시설용량 수백kW의 소형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일부 주민세대 및 제한된 공장·기업소에 대한 전력공급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

※ 조수력발전소는 사용가능한 낙차가 수m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일반 수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에너지추출장치를 필요로 하는 등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감.

(5) 화학공업 부문

- 북한은 8.7 최대규모 비료생산 공장인 「홍남비료연합기업소」가 설비를 '집중 보수'하고 각종 새로운 생산공정을 건설, 그동안의 난관을 이겨내고 활성화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였는데

※ 「홍남비료연합기업소」(함남도 함흥시 홍남구역 소재)는 총부지면적 140만㎡에 2만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최대의 비료공장으로서 만덕, 동암, 수풍, 수동광산에서 원료 및 연료를 공급받아 유안, 과린산석회 등을 생산하는 연산능력 133만톤의 「특급기업소」임.

- 홍남비료연합기업소의 설비보수 및 생산공정 건설은
- '변류직장'(암모니아 제조용 수소 생산)의 전해조극판 교체, '합성직장'(암모니아 합성·생산)의 압축기 개조 등을 통한 질소질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의 생산 정상화와
- 회류산, 농류산 등 황산 생산공정의 건설을 통한 과린산석회 생산능력 정비가 주요한 목적으로
- 이를 통해 동 기업소의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전력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생산 증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화학비료 생산능력 >

(단위 : 만톤)

유 안	질안석회	요 소	과인산석회	계
40	35	18	40	133

[기 타]

- 북한은 7월을 '제품 질 제고대책 월간'으로 설정하고 석탄·기계·생활필수품 등의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 이를 위해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구체적 품질지표로서 △제품의 성능과 효과성 △제품의 수명과 모양 △제품의 견고성과 특성 △제품의 위생성과 안전성 등 각종 지표들을 마련하였으며
 -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선탄장 현대화를 통한 탄질 제고 대책, △철저한 설비관리·기술관리와 함께 기술규정 및 표준조작법의 엄격한 이행을 통한 기계제품 질 제고 대책, △상표도입을 통한 제품의 가치 제고 대책 등을 제시하였음.
-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 대내적으로는 그동안 실적위주의 생산으로 품질이 날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품질 조약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병폐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며

- 대외적으로는 극심한 품질 저하로 상품수출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증대를 모색하려는 북한의 자구책으로 보임.

○ 특히 상표권의 도입은

- 집단경제체제에서 그동안 동한히 해 왔던 개체경제적 성격의 고유상표 허용을 통한 가치(가격) 결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초보수준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범적 시도로서 「노동가치에 기초한 물량경제」로부터 「시장가치에 입각한 가격경제」로 이행하는 하나의 진전된 변화로 평가되며
- 동시에 개정헌법에서 추가된 경제적 자율성 및 재산성 중시 조항(헌법 제33조)의 실천적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음.

마. 수송·통신부문

- 신년사를 통해 ‘긴장한 철도수송문제’ 해결을 강조한 북한은 연도중
 - 함흥~마전간 협궤철도 전기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3.5),
 - 사리원시의 무궤도전차선 1단계공사를 완료·개통(6.19)하였으며

- 청진시에서는 7.2 남청진~봉천동 구간의 케도전차화 공사를 완공하고, 11월 현재 남청진~사봉간의 케도전차화 2단계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음.
- o 도로건설에서는 1개 구간의 산업도로와 2개 구간의 관광도로를 완공하였음.

< 올해 북한의 도로 건설 실적 >

도 로(명)	구 간(길 이)	용 도	비 고
장수산 유원지도로	황남 재령군 양계리~서립리~석탄리 (약20km)	관 광	'99. 1 완공
개성시-영통사간 순환도로	고려박물관~영통사, 용흥동~영통사 (15.8km)	관 광	'99. 6 완공
해주-용당간 도로 (개진확장)	황남 해주~용당(6.4km)	산 업	'99. 10 개통

- o 또한 '98년 11월에 착공한 평양~남포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2개 구간의 산업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바
 - 함남 정평군 초원리~금야군 정동리간의 흑돌령도로 건설을 추진하였으며(1.14),
 - 이밖에 나진·선봉시에서는 시내의 주요 도로를 확장·정비하였음.(11.19)

- 해운부문에서는 서해안 지역에서 남포항 외의 '또다른 대외 무역기지'인 「대홍항」이 건설·조업(9.13)되었음.

※ 「대홍항」은 부지면적 8만여㎡에 부두(수천톤급 화물선 접안능력)와 창고, 부대시설과 공공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컴퓨터로 시설을 운영

- 한편 통신 부문에서는 나진·선봉시에 「국제통신센터」를 착공(6.16)하였는 바

- 국제통신센터(7,000㎡)의 착공식에는 체신성 부상 맹학섭,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 김수열 및 태국 Loxley Pacific사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 이 센터가 완공되면 일반 전화교환 업무외에도 이동통신 업무도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국제 화물 중계수송기지·수출가공기지 등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1995~2000년(당면단계기간) 중 교통운수 및 통신을 비롯한 경제하부구조 건설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95.9월 태국 Loxley 그룹과 국제통신센터 건립 등 총 51만 5,000회선 규모의 통신망 확충사업 양허계약을 체결하고 '97.7월 1차로 1,500회선 규모의 이동식 간이 국제전화 교환설비를 도입·설치한 바 있음.

- 또한 당창건기념일을 맞아 인터넷사이트 「조선 인포뱅크」(Infobank of DPRKorea)를 개설하고 대북투자·교역관련 정보제공 업무를 시작(10.10)하였음.

- 이 인터넷 서비스는 「범태평양 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 서비스 내용은 △해외동포들의 대북투자·무역업무 자문, △회원모집 및 회지·홍보지 발행, △북한 수출상품전시회, △투자환경설명회 및 학술회의 등 국제회의 조직, △투자유치 및 투자방문단 모집, △북한 수출상품전시장 설치·운영, △기타(문화·예술·관광·체육관련 자문서비스) 등임.

바. 과학기술 부문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며
 - “은 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게 하여야 한다”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는 한편, '99년도를 「과학의 해」로 설정하고
 - 김정일의 과학기술부문 현지지도(과학원, 1.11, 과학원 합동분원, 3.7)에 이어
 -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3.25~26), 제14차 「중앙과학기술축전」(3.23~27),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24차 전원회의 확대회의(4.27) 등 과학기술관련 행사의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시하였음.

- 특히 '91.10 「전국 과학자대회」를 개최한 이래 8년만에 개최된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부문 집회인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는
 -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및 '첨단과학기술발전 중심과제'의 철저한 수행을 다짐하는 한편,
 - 전력공업, 석탄공업 등 일반산업부문의 실용적 기술발전보다는 전자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등 첨단과학부문의 발전에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였음.
 - 또한 조총련계 과학기술자들의 공로를 부각 선전함으로써 일본을 첨단과학기술 도입의 주된 창구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 이완된 과학기술부문의 규율 및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 행정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체계 확립을 강조하였음.
 - 한편 북한은 연구소, 공장·기업소의 연구개발 성과 및 기술혁신 성공사례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는 바
 - 화학공업성 산하 공장·기업소의 기술혁신 도입사례와 과학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개발 성과를 열거하면서 '광명성1호' 발사후 지난 1년동안 과학연구부문에서 50여건의 과학기술을 개발·연구 완성하였다고 선전하였음.
- ※ 전자공학부문 :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쓰이는 집적회로 품종 개발 및 고밀도 녹화테이프 개발에 사용되는 분말재료 추출

※ 컴퓨터·프로그램부문 : 조선글 문서·문자, 조선말 음성인식 및 민속놀이 프로그램 등 개발

※ 기계공학부문 : 금속 및 미생물세포를 직접 관찰·촬영하고 기억시키는 수십만배의 전자현미경과 주사식현미경을 연구 완성

※ 금속공학부문 : 자체의 원료·연료·기술로 산소열법에 의한 선철생산 방법 연구

- 7월중에는 과학원 집적회로 시험공장 과학자들이 자체의 재료와 기술로 여러 종의 대규모 집적회로를 연구개발하여 대량생산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 김일성종합대학 촉매연구소에서 '산소제거장치'와 에너지 개발에 의의가 있는 '수소니켈축전지'를 연구 완성했다고 주장

○ 또한 제10차 「전국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 (9.21~9.28)하였는 바

- 동 전시회에는 “주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이 360여종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 프로그램 경연의 출품 건수 추이 >

'90년(1차)	'93년(4차)	'94년(5차)	'95년(6차)	'96년(7차)	'98년(9차)	'99년(10차)
440건	265건	315건	200건	150건	337건	360건

3. 대외경제동향

가. 대외무역

- '99년도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14.4억달러) 보다 감소하여 14억 달러에도 미달한 것으로 잠정평가됨.
- 수출(1~11월)은 일본으로의 계, 어패류(6,457만달러, 24.8% 증가), 변압기 등 임가공전기기기(1,451만달러, 11.5% 증가) 중국으로의 홍합, 생선 등 수산물(430만달러, 77.8% 증가), 임가공 정제유(204만달러, 67.8% 증가) 등이 증가하였음.
 - 반면, 일본으로의 임가공 섬유제품(5,421만달러, 14.9% 감소), 벚짚(986만달러, 71.5% 감소), 무연탄(1,004만달러, 30.8% 감소), 중국으로의 목제품(1,245만달러, 7.0% 감소), 철강(917만달러, 2% 감소), 광물(229만달러, 58.9% 감소) 등은 수출이 감소하였음.
- 수입(1-11월)은 중국으로부터의 원유·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7,224만달러, 6.6% 증가), 철강(1,351만달러, 21.6% 증가), 통신용기기, 전극 등 전기기기(1,351만달러, 21.6% 증가)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음.
 - 반면, 중국에서 쌀·옥수수 등 곡물(3,986만달러, 18.4% 감소), 밀가루(907만달러, 59.8% 감소), 대두(741만달러, 4.9% 감소) 등 식량수입과 플라스틱제품(1,219만달러, 16.8% 감소), 일본으로부터는 차량 및 부품(2,550만달러, 27.2% 감소), 석유 등 광물성연료(376만달러, 76% 감소) 자석 등 전기기기(1,912만달러, 14.6% 감소) 등은 수입이 감소되었음.

- 국가별로는 중국·일본이 3.7억달러, 3.5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전히 제1위 제2위 교역상대국이며, 남북한 교역 총액이 3.3억달러로 중국·일본 교역총액에 근접하였음.

[중국]

- '99년도(1-11월) 북한-중국간 무역실적은 3억 2,95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7.9% 감소하였음.
 - 1-11월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19.3% 감소한 3,680만달러
 - 대중국 수입은 6.3% 감소한 2억 9,270만달러를 기록하였음.
- '99년도(1-11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제재목, 톱밥, 궤도용 침목 등의 목재제품(1,245만달러)과 철강(917만달러) 등 2개품목이 주도하였음.
 - 이외 수산물(430만달러), 광·슬랙 및 회(230만달러), 광물성연료(204만달러), 연피(105만달러), 약초(105만달러) 등이 100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임.
-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증가한 주요품목은 수산물(430만달러, 77.8% 증가), 광물성 연료(204만달러, 67.8% 증가), 연(105만달러, 25.5% 증가) 등임.

-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목재(1,245만달러, 7.0% 감소), 철강(917만달러, 2.0% 감소), 광·슬랙 및 회(229만달러, 58.9% 감소), 약초(105만달러, 28.8% 감소) 등임.
- '99년도(1-11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광물성연료(7,224만달러)와 곡물(3,986만달러) 등 2개품목이 주도하였음.
 - 그 밖에 1,000만달러 이상 수입품목은 철강(1,351만달러), 플라스틱(1,219만달러), 전기·음향기기(1,186만달러) 등임.
 - 그 밖에 주요 수입품목은 보일러류(945만달러), 제분공업제품(907만달러), 대두 등(856만달러), 비료(697만달러), 수송기기(632만달러), 무기화학물(569만달러) 등임.
-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광물성연료(7,224만달러, 6.6% 증가), 철강(1,351만달러, 21.6% 증가), 전기기기(1,186만달러, 52.3% 증가), 보일러류(945만달러, 72.3% 증가) 등임.
-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곡물(3,986만달러, 18.4% 감소), 플라스틱(1,219만달러, 16.8% 감소), 밀가루 등(907만달러, 59.8% 감소), 대두 등(856만달러, 50.0% 감소), 비료(697만달러, 33.7% 감소), 수송기기(632만달러, 12.0% 감소) 등임.
 - 이와 같이 최대 수입품목인 곡물(쌀, 옥수수, 보리 등) 등 식량관련 상품의 수입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 '99년 1~11월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 >

□ 수출

(HS코드) 품 목 명	금액(천달러)	증감율(%)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2,445	△7.0
(72) 철강	9,166	△2.0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4,302	77.8
(26) 광·슬래 및 회	2,290	△58.9
(27) 광물성연료	2,035	67.8
(78) 납과 그 제품	1,054	25.5
(12) 채유용 종자, 과실, 약용·사료용 식물	1,052	△28.8
(07) 식용채소·뿌리 및 괴경	930	55.1
(50) 견	559	△33.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558	△60.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97	134.4
(84) 보일러·기계류 및 부품	287	△92.2
(08) 과실, 견과류, 감귤류 껍질	252	△41.1
(79) 아연과 그 제품	202	△12.8
(92) 악기와 부품	189	33.5
(28) 무기화학품, 귀금속 등 화합물	168	△33.6
합 계	36,839	△19.3

□ 수입

(HS코드) 품 목 명	금액(천달러)	증감율(%)
(27) 광물성연료	72,238	6.6
(10) 곡물	39,858	△18.4
(72) 철강	13,510	21.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2,186	△16.8
(85) 전기기기, 음향기기 등	11,856	52.3
(84) 보일러·기계류 및 부품	9,454	72.3
(11) 제분공업생산물과 맥아, 전분 등	9,069	△59.8
(12) 채유용 종자, 과실, 약용·사료용 식물	8,558	△50.0
(31) 비료	6,973	△33.7
(87) 차량 및 부품	6,319	△12.0
(28) 무기화학제품, 귀금속 등 화합물	5,690	△5.3
(86) 철도차량 및 부품	4,621	134.4
(40) 고무 및 그 제품	4,565	△32.9
(54) 인조필라멘트	3,963	△46.3
(15) 동·식물유, 정제 식용유지	3,790	△49.9
(29) 유기화학제품	3,747	10.1
(52) 면화	3,741	259.1
(73) 철강제품	3,596	42.0
(38) 각종 화공제품	3,481	△32.7
합 계	292,703	△6.3

- '99년 북한-중국간 무역은 상반기 감소세 20.9% 보다는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 바
 - 이러한 교역 회복세는 식량·코크스 등 주로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이 하반기 들어와서 본격화 되었기 때문이며
 - 그밖에 철강, 전기기기, 면화 등 주요 품목의 수입증가로 전체 수입부문의 감소세가 대폭 완화된 데 따른 것임.

[일본]

- '99년(1-11월) 북한-일본간 무역총액은 전년동기비 15.1% 감소한 3억 970만달러를 기록하였음.
 - 1-11월중 북한의 대일본 수출은 1억 8,240만달러로 전년동기비 9.9% 감소하였으며
 - 대일본 수입은 1억 2,73만달러로 전년동기비 2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99년도(1-11월) 북한의 대일본 수출에서는 바지락 등 어패류(6,457만달러)와 임가공 의류(5,421만달러)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수출 점유율 65.1%)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 100만달러 내외의 수출품목은 변압기 등 임가공 전기기기(1,451만달러), 석탄 등 광물성연료(1,004만달러) 등임.

- 전년 동기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수산물(6,457만달러, 24.8% 증가), 전기기기(1,451만달러, 11.5% 증가) 마그네사 크링카 등 토석류(674만달러, 50.3% 증가) 등임.
- 수출이 감소한 품목은 임가공의류 부품(5,421만달러, 14.9% 감소), 석탄 등 광물성연료(1,004만달러, 30.8% 감소), 벚짚 등(986만달러, 71.5% 감소)임.
-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 등 수송기기(2,550만달러), 양모 및 그 직물(1,934만달러), 전기기기(1,912만달러), 건설용기기(1,089만달러) 등임.
 - 이외에 100만달러 이상 수입품목은 인조필라멘트(603만달러), 석탄 등 광물성연료(376만달러), 면(171만달러), 플라스틱(169만달러), 광물성연료(164만달러), 인조스테이플섬유(147만달러) 등임.
-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인조필라멘트(603만달러, 4.0% 증가), 플라스틱(334만달러, 0.9% 증가), 철강제품(186만달러, 32.0% 증가) 등임.
-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차량 등 수송기기(2,550만달러, 27.2% 감소), 양모(1,934만달러, 6.6% 감소), 전기기기(1,912만달러, 14.6% 감소), 건설용기기(1,089만달러, 11.7% 감소) 등이며

- 최대 수입품목인 차량 등 수송기기는 트럭(5~20톤)과 승용차(배기량 1,500~3,000cc)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광물성연료 수입은 KEDO 중유 지원분 중 일본에서 조달·공급된 376만달러 상당의 중유가 대부분을 차지함.
- '99년 북한-일본간 무역은 수출입 모두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수입의 감소폭이 훨씬 두드러졌음.
- 대일 수출을 종합해 보면 수산물, 전기기기, 마그네샤 크링카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전통적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벗짚, 무연탄, 임가공 섬유제품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 수입의 급감은 수송기기, 양모, 전기기기, 기계류 등 상위 수입품목들이 모두 감소한데다, 지난해에 계상되었던 식량지원이 '99년에는 대폭 줄어들었던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99년 1-11월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입품목 >

□ 수출

(HS코드) 품 목 명	금액(천달러)	증감율(%)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64,573	24.8
(62) 의류/부속품(메리야스, 뜨개질편물외)	54,213	△14.9
(85) 전기기기, 전자기기 및 부속품	14,512	11.5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10,044	△30.8
(12)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9,859	△71.5
(25) 토석류 및 석회, 시멘트(마그네시아)	6,737	50.3
(07) 식용채소·뿌리·괴경	5,770	△74.5
(72) 철강	3,632	△48.0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2,735	△9.0
(61) 편물의류	1,847	△47.4
(92) 악기류	1,310	△60.9
(78) 연	976	△2.5
(73) 철강제품	695	△12.8
(84) 보일러·기계류	660	206.9
(16) 육·어류조제품	616	△32.0
(42) 가죽제품	598	△48.9
합 계	182,357	△21.7

□ 수입

(HS코드) 품 목 명	금액(천달러)	증감율(%)
(87) 차량 및 부속품	25,497	△27.2
(51) 양모 및 그 직물	19,340	△6.6
(85) 전기기기, 전자기기 및 부속품	19,120	△14.6
(84) 보일러와 기계류	10,888	△11.7
(54) 인조필라멘트	6,033	4.0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3,755	△76.0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342	0.9
(52) 면	2,665	△16.8
(55) 인조스테이플섬유	2,639	△18.0
(73) 철강제품	1,865	32.0
(40) 고무	1,442	71.8
(62) 의류(편물 제외)	1,407	△3.8
(90) 광학·정밀기기	1,223	△3.1
(48) 종이·판지	1,214	△20.1
(72) 철강	1,187	△17.2
(32) 염료·페인트	1,179	19.9
(94) 가구류	1,161	△11.8
(37) 필름	1,108	29.9
(58) 특수직물	1,055	△44.3
합 계	127,344	△31.9

[기타국가]

- '99년 상반기중 북한-홍콩간 무역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42.8% 증가한 5,128만달러를 기록하였음.
 - 북한의 대홍콩 교역은 수출입 모두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 북한의 대홍콩 수출은 생사 및 직물, 귀금속(금, 은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금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1.8% 증가하였으며, 통상홍콩의 대북한 금수입이 하반기에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99년 연간 실적은 '98년보다 상회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홍콩 수입에서는 홍콩의 대북한 자체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재수출이 급증하였음.
 - 홍콩의 대북한 재수출 최대품목인 권련이 전년 동기보다 93.1% 증가하였고, 대형승용차(3,000cc 초과)와 재생타이어, 영상기록/재생용 기기 등의 거래가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99년 상반기중 북한-인도간 무역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6.3% 증가한 6,862만달러를 기록하여 인도는 일본, 중국에 이어 북한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음.
 - 북한의 대인도 수출은 2,098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6% 감소한 반면, 대인도 수입은 4,964만달러로 26% 증가하였음.

나. 남북교역

[교역전반]

- 1999년(1~10월) 남북한 물자교역은 2억 8,768만달러로 전년 동기 1억 7,904만달러에 비해 60.7% 증가하였음.
 - 1999년(1~10월) 물자교역에 참여한 업체수는 490개로 1998년말(378개)에 비해 112개 업체가 늘어났음.
 - 교역품목수도 488개품목으로 1998년말(486개)에 비해 2개 늘어났음.
- 전체교역액중 비거래성교역은 전년동기 6,257만달러 대비 118.9% 늘어난 1억 3,700만달러임.
 - 이는 대북 비료지원, 금강산관광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비거래성 대북물자 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비거래성을 제외한 실질교역(거래성교역: 상업적거래 및 위탁가공교역)은 전년동기 1억 1,647만달러 대비 29.4% 늘어난 1억 5,068만달러로
 - 이는 국내경기의 회복으로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이 증가하고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는 등 실질교역이 회복된 결과로 보임.

- 1999년(1~10월) 반입은 9,440만달러로 전년동기(7,462만달러) 대비 26.5% 증가하였음.
- 주요반입품목은 석유류(38.9%), 농림수산물(36.5%), 철강·금속제품(13.2%)등임.
- 전년동기 대비 철강·금속제품(1,247만달러, -26.5%)은 감소하였으나, 석유류(3,670만달러, 12.3%), 농림수산물(3,446만달러, 112.5%), 광산물(218만달러, 185.4%) 등은 증가하였음.

< '99년(1~10월) 주요 반출입 품목 구성 >

(단위 : 천달러, %)

구분	품 목	'98년 1~10월(A)		'99년 1~10월(B)		증감률 (B-A)/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반 입	농림수산물	16,213	21.7%	34,458	36.5%	112.5
	광 산 물	765	1.0%	2,184	2.3%	185.4
	화학공업생산물	2,194	3.0%	2,225	2.4%	1.4
	섬 유 류	32,668	43.8%	36,695	38.9%	12.3
	철강·금속제품	16,954	22.7%	12,466	13.2%	-26.5
	기계류·운반용기계	40	0.0%	1,557	1.6%	3,792.5
	전자 및 전기	2,682	3.6%	2,495	2.6%	-7.0
	기타제품	3,100	4.2%	2,286	2.4%	-26.2
	기타(코드불확실)			33	0.0%	-
	소 계	74,616	100.0%	94,399	100.0%	26.5
반 출	일 차 산 품	15,610	15.0%	12,423	6.4%	-20.4
	화학공업제품	4,427	4.2%	42,166	21.8%	852.5
	플라스틱, 고무, 가죽	3,945	3.8%	4,356	2.3%	10.4
	비금속광물제품	19,317	18.5%	49,285	25.5%	155.1
	섬 유 류	25,134	24.0%	30,369	15.7%	20.8
	생 환 용 품	1,655	1.6%	3,213	1.7%	94.2
	철강·금속제품	6,496	6.2%	15,471	8.0%	138.1
	전자 및 전기	4,126	4.0%	6,439	3.3%	56.1
	기계류·운반용기계	21,860	20.9%	25,285	13.1%	15.7
	잡제품	1,857	1.8%	3,318	1.7%	78.7
	기타(코드불확실)			959	0.5%	-
소 계	104,427	100.0%	193,283	100.0%	85.1	
합 계	179,043		287,683		60.7	

- 1999년(1~10월) 반출은 1억 9,328만달러로 전년동기 1억 443만달러 대비 85.1% 증가하였음.
- 주요반출품목은 비금속광물제품(25.5%), 화학공업제품(21.8%), 섬유류(15.7%),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13.1%), 철강금속제품(8.0%) 등임.
- 전년동기 대비 1차산품(124만달러, -20.4%)의 반출은 감소하였으나, 화학공업제품(4,217만달러, 852.5%), 비금속광물제품(4,929만달러, 155.1%), 철강·금속제품(1547만달러, 138.1%) 등이 크게 늘어났으며 섬유류(3,037만달러, 20.8%),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2,529만달러, 15.7%) 등 전품목의 반출이 증가하였음.

[실질교역]

- 1999년(1~10월) 실질교역(상업적거래 및 위탁가공교역)은 1억 5,068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9.4%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의 52.4%를 차지함.
- 이중 반입은 9,428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4%, 반출은 5,641만달러로 34.8% 증가함.
- 연도별 실질교역액은 1995년 2억 7,651만달러, 1996년 2억 3,926만달러, 1997년 2억 5,030만달러, 1998년 1억 4,393만달러임.
- 상업적거래는 6,797만달러로 전년동기 5,666만달러 대비 20.0% 증가하였음.

- 반입은 5,020만달러로 전년동기 4,031만달러 대비 24.5% 증가, 반출은 1,777만달러로 전년동기 1,635만달러 대비 8.7% 증가함.
 - 상업적거래는 실질교역의 45.1%, 전체교역의 23.6%를 차지함.
- 위탁가공교역은 8,271만달러로 전년동기 5,982만달러 대비 38.3% 증가함.
- 반입은 4,408만달러로 전년동기 3,431만달러 대비 28.5% 증가, 반출은 3,863만달러로 전년동기 2,551만달러 대비 51.4% 증가함.
 - 위탁가공교역은 실질교역의 54.9%, 전체교역의 28.8%를 차지함.
- 위탁가공교역은 반출입 모두 섬유류 중심의 단순 가공분야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으나 전자 및 전기 등과 같은 여타 부문으로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음.
- 1999년(1~10월) 섬유류의 반입비중은 79.2%로 낮아졌으며 전기 및 전자의 반입비중은 5.7%를 차지함(1998년 섬유류의 반입비중은 84.7%, 전자 및 전기의 비중은 8.3%).
 - 반출의 경우에도 섬유류의 비중(69.6%)이 매우 높지만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전자 및 전기, 생활용품, 잡제품 등의 비중도 5% 내외를 차지함.

-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수는 1998년 72개에서 1999년(1~10월)에는 130개업체로 크게 증가하였음.
- 위탁가공교역 품목수는 1998년 144개에서 1999년(1~10월)에는 169개로 늘어났음.

[비거래성교역]

- o 1999년(1~10월) 비거래성교역은 1억 3,700만달러로 전년동기 6,257만달러 대비 118.9%로 크게 증가하여 전체교역의 47.6%를 차지함.
 - 반출은 1억 3,688만달러로 전년동기 6,257만달러대비 118.8% 증가하였으나, 반입은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12만달러에 불과함.
 - 비거래성교역의 반출은 협력사업용 물자(금강산 관광사업 3,743만달러, 경수로사업 1,207만달러, 기타 협력사업 620만달러)와 대북지원용 물자(KEDO중유 3,951만달러, 대북지원 물품 4,279만달러) 반출임.
 - 기타 협력사업물자 반출은 (주)태창, (주)녹십자, 국제옥수수재단 등의 경협관련 사업 설비 및 기자재 반출임.
- o 비거래성 교역의 거의 전부는 반출이며, 반출 품목으로 1996년까지 KEDO 중유뿐이었으나 1997년에 경수로사업 및 대북지원 물자, 1998년에 금강산관광사업용, 1999년에 들어와서 기타 협력사업용 물자가 추가됨.

- 연도별 비거래성 물품 반출액은 1995년 1,078만달러에서 1998년 7,802만달러로, 1999년(1~10월) 1억3,688만달러로 증가하였음.
- 이들 비거래성 물품반출이 남북교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에서 1999년(1~10월)에는 47.6%로 증가하였음.
- 비거래성 물품반출이 남북교역의 총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6.0%에서 1999년(1~10월) 70.9%로 급증함.

< 비거래성 물품 반출현황 (1995~1999.10) >

(단위: 천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10
KEDO중유	10,778	12,782	29,019	19,819	39,512
대북지원	-	-	8,388	15,628	41,787
경수로사업	-	-	17,843	3,954	12,074
금강산관광사업	-	-	-	38,614	37,429
협력사업	-	-	-	-	6,197
합 계	10,778	12,782	55,250	78,015	136,999
교역액 비중	3.8	5.1	17.9	35.2	47.6
반출액 비중	16.0	18.4	47.0	60.2	70.9

다. 나진-선봉지대

- o 종래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을 전담하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지난 해 무역성으로 옮기면서 동 지대에 대한 무역성의 통제권이 강화되었음.

○ 체신성 부상 맹학섭,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 김수열 및 태국 Loxley Pacific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진-선봉시에서 「국제통신센터」를 착공하였음.(6.15)

- 착공된 「국제통신센터」(7,000㎡)는 2년후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완공 이후에는 일반 전화교환 업무외에도 이동통신 업무도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95년 9월 태국 Loxley 그룹과 국제통신센터 건립 등 총 51만 5,000회선 규모의 통신망 확충사업 양허계약을 체결하고, '97년 7월 1차로 1,500회선 규모의 이동식 간이 국제 전화 교환설비를 도입·설치한 바 있음.

○ 또한 연도중 북한은 나진·선봉시내의 주요 도로를 확장·정비 하였음.

- 보도에 따르면, 총 연장길이 370리에 이르는 선봉-은덕, 선봉-원정, 선봉-두만강, 선봉-우암 구간 도로를 정비하고, 폭 6m의 이들 토사도로를 9m로 확장하는 한편 나진-선봉읍 사이 15km 구간의 포장도로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원정리 자유시장이 '99년 4월부터 출입이 금지되고 있음.

- 원정리시장이 문을 닫은 이유는 시장개설후 북한 각지의 상인이 몰려와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했으며,

- 중국상인들은 원정리시장보다 나진·선봉에 직접 들어가 장사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원정리시장을 대신해 나진에 있는 시장이 번창하고 있다고 함.

라. 대외경제협력

[대북지원]

- 북한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받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음.
- 중국 정부는 '98년(10.13) 대북한 원유 8만톤을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래 2개월만에 전량 지원 완료('99.1.14)하고, 단동을 통해 대북지원 코크스를 무상지원하기 시작(8.15)하였음.
 - 대북 코크스 지원은 북한대표단(김영남, 홍성남 등) 방중(6.3~7)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중국은 북한에 코크스 40만톤, 식량 15만톤을 무상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음.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대부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99년들어 WFP를 통해 1억 6,07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였음. 그 밖에 감자재배 프로젝트를 위한 취로 식량 10만톤, 씨감자 1,000톤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음.
- 한편 주러 북한대사 박의춘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주를 방문하고 주정부에 씨감자지원을 요청(2.22)하였음.
 - 주러 북한대사 박의춘은 노보시비르스크주 대외경제담당 부지사 V.네하로쉬코프를 면담하고 식량 및 씨감자 원조를 요청

- 인도 정부는 북한에 백미 1,000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인수식이 남포항에서 진행(2.12)되었음.

※ 중앙방송(2.13)은 “인도 정부가 이미 10만달러분의 모포, 1,000톤의 밀, 2,000톤의 백미를 지원한데 이어, 최근 또 다시 1,000톤의 백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도

- 멕시코 정부는 북한에 대해 10만달러 상당(물량기준 환산시 760여톤)의 원유(maya油)를 지원키로 결정(9.6)하였음.

- 북한 주재 몽골대사는 몽골정부의 대북지원물자를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전달(12.9)함.

- 한편 UN기구·NGO 등 국제기구·단체들은 연도중 식량·의약품 중심의 대북지원을 하였으나 대부분 당초 목표액이나 '98년도 지원 실적에 크게 못미쳤음.

- WFP(세계식량계획) : 미국의 대북지원분(1억6,070만달러)을 포함하여 '99년중 총 1억7,76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제공하였음.

- UNICEF(UN아동기금)·WHO(세계보건기구) 등 : 대북 의약품 지원, 수질개선사업 등에 555만달러를 모금

- FAO(UN식량농업기구)·UNDP(UN개발계획) : 이모작, 작물다양화사업 등에 240만달러를 모금

※ 북한의 농경지 복구와 염전건설에 필요한 UNDP의 지원물자 기증식이 10.21 평양에서 진행

○ NGO : 국제적십자연맹 등 18개 단체가 의료장비, 수질정화사업 등에 366만달러 상당을 지원

○ 그 밖에 OPEC 국제개발기금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열린 제87차 집행위원회 회의(6.17)에서 북한의 평남도 저수지 복구사업에 대해 1천만달러의 차관(5년 거치 12년 상환, 1.0~2.75%)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차관조성 협력기관: OPEC 회원국가 정부, 아랍경제개발기금(쿠웨이트), 아프리카 경제개발 아랍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 국제개발복구은행, 해외경제협력기금(일본), 미주개발은행(미국), 스페인 정부 등임.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99년도 EU-북한간 식량지원 양해각서」를 통해 대북 식량원조 및 농업복구 등을 위해 총 3,000만유로 상당을 지원한 것을 승인(6.15)하였음.

※ 유럽연합(EU)은 북한에 2만톤의 밀을 원조하기 위해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입찰을 공고(10.12)

※ 총 3,000만유로에 달하는 구체적 지원내역은 식량원조 1,760만유로, 농업복구 940만유로, 취로사업 210만유로, 기술지원 90만유로임.

- KEDO는 북한에 제공하게 되어 있는 '99년도 지원분 중유 50만톤을 모두 납입(11.6)하였음.
 - 북·미 기본합의문이 채택('94.10.21)된 이후 1차년도인 '95년에는 15만톤, '96년부터는 매년 50만톤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총 215만톤의 중유가 공급되었음.
- 한편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중앙통신(11.29)을 통해 UN이 제6차 대북지원 합동Appeal(11.23, 제네바)을 통해 2000년에 총 3억 3,171만달러 규모를 북한에 지원키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음.
 - 이중 식량 및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3억 362만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92%를 차지함.
 - WFP의 기 확보분 5,802만달러(식량 15.5만톤) 포함시 실제 규모는 3억 8,973만달러임.
 - 따라서 2000년 UN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 규모는 기 확보분을 포함하여 총 60.2만톤으로 파악됨.

[외국 대표단 방북]

- 이디오피아 정부대표단(단장: 하일레 멜레코트 트 기오르기스 재정성 부상)이 방북(1.19~1.23)하였음.
 - 이디오피아 대표단 방북은 이디오피아가 북한에 상환해야 할 부채문제와 제7차 경제공동위원회의 개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EU위원회 대표단(단장: 퍼시웨스터룬드 대외관계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방북(1.22~25)하였음.

- EU위원회 대표단의 방북은 대북 식량지원 실태조사와 농업 및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음.

※ 북한과 EU는 작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초의 정치대화를 갖고 EU-북 관계, 핵·미사일 비확산, 대북식량지원 및 북한 인권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 바 있음.

○ 이란 외무성 대표단(모센 아민자데 무성 부상,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이 방북(2.9~12) 하였음.

- 이란 외무성대표단은 이번 방북기간중 백남순 외무상(2.1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2.11)과 회담을 가졌음.

- 이란 외무성대표단의 방북에서는 북-이란간 관계증진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유럽의회내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글린 포드’ 유럽의회 의원 일행이 방북(4.1~5)하였음.

- 북한대표단의 제101차 IPU총회 참석문제를 협의하고, 유럽연합(EU)-북한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3,000만유로(한화 400억 원 상당) 대북지원 식량 분배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국왕 부처를 비롯, 부수상, 국무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 상원의원, 국회의원 등이 수행

- 세계식량계획(WFP)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 일행이 방북(8.5~10)하였음.
 - WFP 사무국장 일행의 방북은 WFP의 농업관련 대북지원 사업을 논의하고 북한의 식량사정과 지원식량 분배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백남순 외무상(8.9),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8.9)과 면담하였음.

- 「국제 옥수수·밀 개량센터」 대표단이 방북(8.7~10)하였음.
 - 북한의 주요 발작물인 옥수수·밀의 생산성 향상, 신품종 개발 육성 등의 지원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앙골라 정부대표단(단장: 보건상 아벨리누 아나싸쓰다셀바 네뚜)이 방북하여 북한측과 회담을 개최하였음.
 - 보건성 최창식 부상과의 정부대표간 회담(9.29), 교육상 변영립 주최 연회(9.29) 참석 등의 일정을 갖고 상호 친선협조관계 발전과 관심사 문제를 토의하였음.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Takao Shibata 총재보 일행이 방북하여 백남순 외무상을 면담(10.12)하였음.
 - 이번 방북은 현재 진행중인 2개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IFAD와 북한간의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IFAD는 '96년 이후 「잠업개발사업」(1996~2001, 1,573만달러), 「곡물 및 축산복구사업」(1998~2003, 2,890만달러) 등 2개 사업에 대해 4,463만달러(계획치)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하여 오고 있음.

< '99년도 북한의 주요 대외경제협력 동향 >

시 기	내 용
1.14	○중국의 대북 지원 원유 8만톤 전량 도착 - 무상 지원 결정('98.10.13)한 이래 2개월만에 전량 지원 완료
1.19~23	○이디오피아 정부대표단 방북
1.22~25	○EU위원회 대표단 방북
2.9~12	○이란 외무성 대표단 방북 - 백남순 외무상(2.10),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장(2.11)과 회담
2.12	○인도의 대북 지원 백미 1,000톤의 인수식이 남포에서 진행
3.17	○UNICEF와 '99년도 북한 아동 및 여성건강, 영양, 교육, 식수 지원을 위한 '협조이행 합의서' 체결
3.21~30	○북한 관광국 인사 대만 입국, 대북한 관광유치 활동 전개
3.22	○미국무부 대변인은 20만톤 대북 식량 지원 발표 - WFP 경유 식량 10만톤 지원, USAID에서 씨감자 1,000톤 및 식량 10만톤 공여
4.1~5	○글린포드 유럽의회 의원 일행 방북

시 기	내 용
5.18	○미국은 WFP의 호소에 따라 40만톤의 식량 대북지원 발표 - 북한의 영양상태가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분배 예정
6.1~7	○양협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기네 방문
6.3~7	○북한대표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등) 중국 방문 - 중국은 식량 15만톤, 코크스 40만톤을 대북 무상지원 키로 통보(6.4)
6.15	○EU 집행위원회는 「'99년도 EU-북한간 식량지원 양해각서」를 통 해 총 3,000만유로 상당을 지원키로 승인
6.17	○OPEC 국제개발기금은 대북 1천만달러 차관을 제공키로 결정 - 북한의 평남도 저수지 복구사업용
7. 1	○경제대표단(단장 무역성 부상 김봉익) 기네 방문, 수상 라민 씨리 떼와 면담
7.7~8	○캄보디아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 방북
8.5~10	○WFP 캐서린 버티니 사무국장 일행 방북 - 백남순 외무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8.9)
8.7~10	○「국제 강냉이·밀 개량센터」 대표단 방북
8.15	○중국은 대북 지원 코크스를 단동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

시기	내 용
9. 6	○멕시코는 10만달러 상당 원유(760여톤)를 대북 지원키로 결정
9.17~28	○제54차 유엔총회에 백남순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 참가 - 백남순 외무상은 18개국 외무장관과 회담(9.20~24) 및 유엔총회 기조연설(9.25) - 최수헌 부상은 3개국 차관회담
9.20	○몽골 외교대표단 방북 - 양협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담화
9.29	○앙골라 정부대표단 방북 - 최창식 부상과 정부대표간 회담
10. 2	○철도성 대표단 북·러 경제공동위 운수분과회의 제3차 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
10.12	○IFAD의 Takao Shibata 총재보 일행 방북 - 백남순 외무상과 면담
10.21	○UNDP는 대북 농경지 복구와 염전 건설 협조자재 제공
11.4~5	○몽골 총리 아마르 자루갈 방북
11. 6	○KEDO는 '99년도 대북 지원 중유 50만톤 납입 완료
11.17	○능라도무역총회사, 방글라데시 Nitol그룹과 시멘트 생산설비 공급 계약 체결
1.19~23	○이디오피아 정부대표단 방북
11.23	○UN은 제6차 합동어필을 통해 2000년에 총 3억 3,171만달러를 대북 지원 계획

시기	내 용
11.24	○북한-EU 제2차 정치회담 브뤼셀에서 개최 - 외무성대표단(단장 유럽국장 김춘국)과 EU의장국 핀란드 외무부 세보로우 부국장
12.1~3	○일본 정당대표단 방북 - 양국 관계개선 및 수교협상재개 내용의 공동보도문 발표
12.4	○북한 대표단(단장 이사장 한국승)은 조·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2차 회의 참석차 평양 출발
12.9	○북한 주재 몽골대사는 대북 지원물자를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평양일용품종합공장에 관련설비 기증

[북한 대표단 순방]

- 북한 관광국 인사(조성걸 관광국 국장 등 3인)가 대만에 입국(3.21~30)하여 대북한 관광유치 활동을 전개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등 북한대표단은 중국을 방문(6.3~7)하여 장쩌민 주석 등 중국 당·정·군 주요지도자와 회담하고, 상해 등 지방도시를 방문하는 등 쌍방 우호친선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중국측의 무상지원을 확보하였음.
 - 대표단의 주용기 총리 방문(6.4)시 중국정부는 식량 15만 톤, 코크스탄 40만톤 등을 북한에 무상원조하기로 통보함.
- 철도성 대표단(단장: 철도성 참모장 김광수)이 북·러 경제공동위 운수분과회의 제3차 회의 참석하였음(10월).

-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리 철도화물 운송비 체불 문제 및 러시아 수출입화물의 나진항을 통한 중계수송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임.
- 무역성 부상 김봉익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대표단이 리비아와 제13차 「경제공동위」의 이행대책 및 제14차 공동위 개최(10월) 문제, 연체 석유대금 지불 문제, 의료인력 진출 확대 문제 등을 논의(6월)하였음.
- 무역성 부상 김봉익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대표단(4명)이 기네를 방문하여 기네공화국 수상 '라민 씨리떼'와 면담(7.1)하였음.
 - 이번 경제대표단의 기네 방문은 최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의 방문(6.1~7)에 이은 것임.
 - 기네측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보크사이트 수입 문제, 농업·건설분야의 경제협력사업 확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제54차 유엔총회 기간(9.17~28, 뉴욕)을 계기로 외무상 백남순 등이 20여개국 외상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음.
 - 외무상 백남순은 유엔총회 기조연설(9.25)을 통해 대미관계를 비중있게 언급하였으며, 그 내용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완화 환영 및 관계개선 용의 표명, 미사일 개발의 당위성, 대북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북한경제의 회복, 포용정책 비난, 인권문제 간섭 배제 등임.

- 외무상 백남순은 18개국 외무장관과 회담(9.20~24)하였으며, 외무장관간 회담 개최국은 유럽(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시), 아·태(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호주), 중동(시리아, 이란), 아프리카(알제리, 가이아나, 세네갈, 말리), 쿠바 등임.
- 부상 최수현은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외무차관과 3개국 차관회담을 가졌음.
- 외무성대표단(단장: 유럽국장 김춘국)과 EU 의장국인 핀란드 외무부의 세보로우 부국장은 브뤼셀에서 제2차 정치대화를 개최(11.24)하였음.
 - 제2차 정치대화에서 쌍방은 북한의 식량 및 인권문제, 한반도의 안보상황,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문제와 함께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차기 회담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음.
- ※ 북한과 EU는 지난해 ('98.12.2)제1차 정치대화를 가진 바 있음.

[조약·협정 체결]

-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3.15~17)하여 신조약에 가조인하고 외무상 백남순 등과의 면담을 통해 쌍방간 현안을 논의하였음.

- 외무성부상 이인규와 신조약, 前文과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호,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Treaty of Friendship, Goodneighbourliness and Cooperation)에 가조인(3.17)함.
 -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완화 및 동북아 정세, 경제협력,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문제 등을 논의하였음.
- 북한 외무성과 수단 대외관계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조인(5.3)하였음.
- 수단 정부대표단(단장 무스타파 오스만 이스마엘 대외관계상)은 방북기간(5.1~4)중 백남순 외무상(5.1)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5.3)등을 면담하고 정부 대표단간 회담(5.3)을 개최하였음.
- ※ 북한은 수단과 '69년 이후 각종 협정을 체결하고 친선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공관운영비 문제로 수단 주재 북한대사관을 폐쇄('92.7.24 이후)한 상태임.
- 북한과 러시아는 평양-블라디보스톡간 항공편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증편하기로 합의(5.7)하였음.
- 평양에서 고려항공사와 블라디보스톡의 아비아항공사 대표들이 회담을 갖고, 평양-블라디보스톡간을 고려항공이 주 2회, 아비아항공이 주 1회 운항하기로 합의하였음.
-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북한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북한-중국간 협정이 베이징에서 조인(6.1)되었음.

- 서명자 : 중국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 주창준, 중국외교부
양문창 부부장

○ 북한·러시아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과학기술상설분과
제3차회의 의정서가 모스크바에서 조인(6.11)되었음.

※ 북한-러시아는 '96년 4월 부총리급 「제1차 경제공동위」를 개최
하여 양국간 경제관계 복원에 합의한 바 있음.

※ '97년 10월 「제2차 경제공동위」에서 농업협력 협정 등 4개 분야의
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하였음.

○ 북한은 불가리아와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소득·
재산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각각 체결(6.16)하였음.

○ 북한-방글라데시는 쌍방간 투자를 촉진하고 상호 투자활동
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음.(6.21)

- 서명자 :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대사 이상일, 방글라데시
외무담당 국무장관 초드후리가

○ 북·중 「국경하천 운항 협조 위원회」 제38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양측 대표단이 관련 합의서를 조인(7.1)하였음.

○ 북한은 방북중인 중국 민항대표단과 평양-센양(瀋陽)간 정
기항로를 개설키로 합의하고, 양측대표단이 해당 문건에 서
명(7.26)하였음.

- 서명자 : 조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김창국, 중국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표배덕
- 북한 「과학원」과 우크라이나 「민족과학원」간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9.10)하였음.
 - 서명자 : 북한 과학원장 이광호, 우크라이나 민족과학원장 B. 파톤
- 북한은 평양에서 말리공화국 정부와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10.11)하였음.
 - 서명자 : 북한 무역상 강정모, 말리 외무 및 해외동포상 모디보 씨디베
- 중국 위생부 대표단(단장: '펑옥' 부부장)이 방북하여 만경대·평양산원 등을 방문하고 평양에서 북·중간 「보건 및 의학·과학 분야 협조협정」을 체결(11.5)하였음.
 - 서명자 : 북한 보건성 부상 최창식, 중국 위생부 부부장 펑옥
- 북한과 리비아 아랍사회주의 인민공동체 사이에 공동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를 조인(11.26, 만수대의사당)하였음.
 -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의정서로 추정됨.
- 북한 기상수문국-중국 기상국은 평양에서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0차 회담록에 조인(12.17)하였음.

< '99년도 북한의 경제·무역협정 체결현황 >

시 기	대상국	내 용
3.17	러시아	○북-러 「우호,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가조약
5. 3	수 단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5. 3	러시아	○평양-블라디보스토크간 항공편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증편하기로 합의
6. 1	중 국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협정 조인
6.11	러시아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과학기술상설분과 제3차회의 의정서 조인
6.16	불가리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소득·재산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
6.21	방글라데시	○투자 촉진 및 상호 투자활동 보장을 위한 투자협정 체결
7. 1	중 국	○북·중 「국경하천 운항 협조 위원회」 제38차 회의의 관련 합의서 조인
7.26	중 국	○평양-센양(瀋陽)간 정기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서명
9.10	우크라이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0.11	말 리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 체결
11. 5	중 국	○「보건 및 의학·과학 분야 협조협정」 체결
11.26	리비아	○공동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 조인
12.17	중 국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0차 회담록에 조인

[국제전시회 개최 · 참가]

- '99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14억달러에도 미달하는 등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수출 증진을 위한 북한의 국제전시회 참가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었음

- 중국 요녕성의 무역대표단(단장: 張行湘 부서기)이 평양에서 수출상품 상담회를 개최(3.16~18)하였음.
 - 상담회에는 요녕성내 30여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가 참가하고, 북한에서도 125개 무역회사의 관련 인사가 상담회에 참가하였음.

- 평양의 「새기술전람관」(3대혁명전시관 內)에서 「'99 평양 국제전람회」를 개최(5.20~26)하였음.
 - 「조·일수출입상사」(조총련 산하)가 주관하며 전시품은 중 소형수력발전설비, 컴퓨터, 전자제품, 식료가공설비, 생활필수품 등임.

- 북한의 「조선컴퓨터연구센터」(KCC)는 중국의 '오성국제연합총공사'를 통해 「'99 중국 국제인터넷 및 컴퓨터전시회」(8.18~22, 북경)에 참가하였음.

< '99년 북한의 전시회 개최 및 참가현황 >

시 기	장 소	내 용
1.19~22	홍 콩	○홍콩패션전 참가 - 신사복, 여성의류 등 전시
3.16~28	평 양	○중국 수출상품전시상담회 개최 - 요녕성 30개업체 참가 - 북한측 125개 무역회사관계자 상담참여
3.23~26	베이징	○「'99 세계 컴퓨터 박람회」 - 북한 소프트웨어 제품 출품
4.14~16	싱가포르	○「PATA 관광전시회」 - 조선국제 여행사 참가 - 북한 관광 홍보
5.8~14	단 동	○중국 단둥 변경무역전시회 - 만수대 고려예술품센터 등 참가 - 그림·약재·민예품 전시
5.20~26	평 양	○'99 평양 국제전람회 개최
7.7~9	센 양	○심양 국제방송기술설비 전시회 - 북한측 '메아리'사 참가 - 마이크 등 출품
8.18~22	베이징	○'99중국 국제인터넷 및 컴퓨터전시회 - 「조선컴퓨터연구센터」(KCC) 참가 - 지문감식시스템 등 프로그램 9종 출품
8.28~9.7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국제박람회」 - 공예품, 건축자재, 섬유류 등 출품
9.17~21	파리엔	○파리엔 국제복장박람회 개최 - 조선연못 복장회사 등 - 겨울옷, 편직류 등 출품
10.31~11.7	아바나	○「'99 아바나 국제박람회」 - 조선국제전람회 등 4개회사 참가 - 직물, 식기, 도자기 등 출품

< '99년 북한의 도서 및 상품전시회 개최 동향 >

기 간	장 소	주 요 전 시 품
1.25~29	리마(페루)	○ 자수, 자개, 그림, 인삼제품, 잡화
4.26~30	비엔나(오스트리아)	○ 민속공예품, 도서, 사진
4.29~5.2	리마(페루)	○ 자수, 자개, 그림, 인삼제품, 잡화
5.15~18	호프도르프(네덜란드)	○ 자수, 자개, 그림, 책자
5.24~28	보고타(콜롬비아)	○ 수공예품
7.21~26	홍콩	○ 도서출판물
8.28~9.7	다마스쿠스(시리아)	○ 공예품, 도자기, 건축자재, 섬유류
9.4	오리샤크지역(불가리아)	○ 그림, 인삼제품, 수공예품, 선전 책자
9.6	셴양(중국)	○ 도서, 사진
11.3~10	크라코프(폴란드)	○ 도서, 사진, 공예품

4. 종합평가 및 전망

<1999년 평가>

-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경제회생에 총력을 경주
 -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현저히 증가
 - ※ '98년 김정일의 공개활동 총 70회중 8회, '99년 총 69회중 23회
 - 주요 생산단위에 군인들을 투입하여 생산력 증대 도모
 -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등 주민 노력동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99년 북한의 경제상황은 9년 연속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농수산업 및 건설부문에 힘입어 소폭으로나마 플러스성장으로 반전
 - ※ 총리 홍성남은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비 20% 증가하고 4,000여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였다”고 발언('99.9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인터뷰)
 - ※ 외무상 백남순은 “북한경제가 '99년부터 회복기에 진입하였다”고 언급('99.9 각국 외상 면담시)

○ 그러나 이와같은 성과는 주로 유희노동력을 활용한 건설부문의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의 결과로서, 침체된 실물경제가
회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

- 산업비중이 높은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전년도 생산부진을 벗
어나지 못한 상태

- 전년도(14.4억불)보다 대외무역규모도 감소

- 이에따라 여전히 식량난·에너지난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무상지원에 의존

※ '95년이래 외부로부터 연간 2.5억~3억달러 규모의 식량·에너지
수원 계속

<2000년 전망>

○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87~'93)이후 아직까지 새로운 경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시기적으로 당창건 55주년을 맞는 올해가 경제 청사진
제시의 적기가 될 수 있으나

- 경제상황 면에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 대외신용도 저하
등으로 차기 경제계획 수립이 어려운 입장

○ 대내적으로는

- 2002년(김정일 60회생일)까지 핵심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문별 당면목표 추진을 통해 경제기반 다지기에 주력할 전망

※ '98.10 '김일성 시정연설 관철을 위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2002년까지의 당면 경제목표를 제시

○ 대외적으로는

-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지원을 경제력 회복에 이용한다는 기본 전략하에
- 우리기업들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외 투자유치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 경제개발의 전기마련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가입, 대미·일 관계 정상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부 록 >

'99년도 북한경제 일지

1. 1 • 신년 공동사설(당보·군보·청년보) 발표(09:00 중·평방, 중앙TV)
 -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 김정일, 공산주의 미풍을 높이 발양한 사포철재일용품공장 노동자 이성희 등에 감사
1. 2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 신년공동사설 관철 결의
1. 3 • 당·정 간부들,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방문하여 근로자들 격려(1.1~2)
 - 함경북도,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주력
 - 당면 목표인 150여개 대상중에서 수십개를 완공하고 나머지는 90% 계선을 넘겼음
1. 4 • 신년 공동사설 과업 관철을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김일성광장)
1. 5 • 철도성 종업원들의 신년 공동사설 관철 위한 쫓기모임
1. 6 • 평북·함남·황남·남포시·철도성·문화성 등, 신년 공동사설 관철 위한 군중대회 및 쫓기모임(1.4~5)
 - 내각의 성·중앙기관 등, 석탄생산 지원
 - 김일성의 평성시 덕산협동농장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1.5)
 - 청년전위·회천공작기계종합공장 종업원들 등, 신년 공동사설 관철위한 쫓기모임(1.5)
1. 7 • 남포시 청산협동농장 농장원·여맹원들, 신년 공동사설 관철 쫓기모임(1.6)
 - 함북·평남·개성시 등, 신년 공동사설 관철 위한 군중대회 (1.5~6)

- 1. 8 • 북-브루나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1.7)
 - 자강도 · 양강도 · 황해북도 · 강원도, 신년 공동사설 과업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 (1.6)
 - 2·8직동청년탄광 종업원들, 석탄생산 결의 쫓기모임(1.6)

- 1. 11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신년 공동사설 관철 쫓기모임/ 겨울철 체육원간 개막 (1.10 빙상관)
 - 평양시내 대학생 15,000여명, 방학기간중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지원

- 1. 12 • 김정일, 과학원 현지지도(1.11) 및 인민군 공훈합창단의 신년 경축공연 관람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 용성기계연합총국을 비롯한 기계공업부문 공장 기업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등 화학 경공업부문공장 기업소, 해주군 수흥협동농장을 비롯 각지 협동농장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의 신년 공동사설 관철 위한 쫓기모임 연속 진행

- 1. 13 • 개성시내 경공업공장들, 인민소비품 생산에 주력
 - 안주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신년 공동사설 제시 과업 관철 위한 쫓기모임
 - 평남 맹산군 용암협동농장, 감자농사 준비 만전

- 1. 14 • 함경남도, 흑돌령 도로 새로 건설
 - "흑돌령은 정평군 초원리에서 금야군 정동리 사이의 고개로서 도로공사가 끝나면 고원-함흥사이 높은 영길이 없어져 자동차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됨"

- 1. 15 • 자강도내 근로자들, 중소형발전소 건설 주력
 - 오래지 않아 100여개의 발전소 완공 예정

- 1. 16 • 전국농업부문일꾼 열성자회의(1.14~15 인민문화궁전)

- 1. 18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일꾼회의(1.17 인민문화궁전)
 -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7,750여 정보의 나무모발 조성, 8억9,715만여 그루의 나무 심기, 480여km의 새도로 건설, 420여km의 물길 바로잡기공사, 600여km의 해안방조제 보수 보강

- 1. 19 • 김정일,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현지지도 보도
 - 김정일, 국토관리 총동원사업에 모범을 보인 49개 시·군들에 선물전달 및 19개 시·군들에 감사 전달, 또한 국토관리와 환경부, 도시경영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국가표창 수여(1.18 인민문화궁전)

- 1. 21 • 중국 정부가 대북 무상지원하는 원유 8만톤 전량 납입(1.14)
 - 김정일, 농촌지원 모범 보인 김일성정치대학 및 인민군 부대장병들에 감사
 - 제14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하여 진행중

- 1. 22 • 평양시 청년건설사단 청년돌격대원들의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성과 선전

- 1. 23 • 태천수력발전종합기업소 종업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권기 모임(1.22)

- 1. 24 • 평양시, 지난해 2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
 - 신의주화학종이연합기업소, 아황산소다 생산기지 1단계 건설 완공
- 1. 25 • 4.25여관 건설에 참가한 군인 및 지원자들에 국가표창 수여
 - 사리원방직공장, 김일성 현지교시와 김정일 현지말씀판 제막
- 1. 26 • 자강도, 지난 2년동안 44,000kw의 발전능력 새로 조성
 - 과학원 수학연구소 등, 음성인식 및 문자인식 프로그램 개발
- 1. 27 • 혁명사적보존기술사, 혁명사적물들에 대한 영구보존 사업 완수
- 1. 28 • 무역절을 맞아 올해를 대외무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
 - 전국근로단체 사상사업부문 일꾼회의(1.26~27)
- 1. 30 • 의무성 대변인, 한·일어업협정 발효 관련 “무효” 주장 담화(1.29)
 - 과학원 수학연구소 프로그램학교, 기능공 양성에 주력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민간급 협력사업에 대한 불순한 방해책동” 보도
 -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가 군사적 목적에 전용된다는 주장과, 이용권의 시한부 명시를 고집하는 정치적 불순 주장들이 남조선 당국에 의해 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 1. 31 • 전국 청년동맹 일꾼들의 결의모임 진행(1.30)
- 2. 3 • 제1수력발전소 건설사업소 종업원들, 김정일의 1.18 태천수력발전소 현지지도 말씀 관철 쉼기모임
 - 평양영화기계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2.2)

- 2. 4 • 김정일, 군민일치 모범을 보인 평양시 의약품관리소 등에 감사
 - 농근맹 중앙위 제35차 전원회의(2.3)
- 2. 5 • 중앙설계계산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2.4)
- 2. 6 • 김정일, 벽동군 산림경영소 청년양유작업반 등에 감사
 - 함흥수리동력대학, 장진강 발전소 퇴수틀 이용 수천kW의 발전소 건설
 - 1월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배 성장했다고 선전
 - 김용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과 담화(2.5 만수대의사당)
- 2. 7 • 김정일, 대홍단군종합농장 배치를 위한 개성애국피복공장 처녀들에 친필
 - “대홍단은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 조-러친선협회 대표단(이성호 협회 위원장 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 향발(2.6)
 - 정주영회장 일행 판문점 통해 귀국(2.6)
- 2. 9 • 방송논설 “제2의 천리마 대진군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보도
- 2. 10 • 김정일, 강원도 토지정리 사업 현지지도 및 공군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보도
 - 평양 시내 화교들,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자들에 지원물자 전달
 - 중방 논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담보” 보도
 - 능라도관리국 산하 애국회종합피복공장 등 20명 처녀들, 양강도 대홍단으로 진출

- 2. 12 • 김정일, 평양시민들을 위한 남새·식료품 운반용 수송기재 전달

- 2. 13 • 인도 정부, 대북 식량 지원
 - “이미 10만달러분의 모포, 1천톤의 밀, 2천톤의 흰쌀을 지원한데 이어 최근 1천톤의 흰쌀을 무상으로 제공했음”
 - 노동당·최고인민회의 상임위·내각, 69개의 공장 기업소에 순회 우승기와 표창장 수여
 - 농근맹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김정일 생일 즈음 덕성실화연단 진행(2.12)
 - 직맹원들의 김정일 생일 경축 모임 진행(2.12)

- 2. 14 • 평양면옥, 김일성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2.13)
 - 단천선박수리공장에 3대혁명 붉은기 수여(2.12)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산소열법 용광로 조업

- 2. 15 • 김정일,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에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선물
 - 승리자동차종합공장, 새롭게 개조한 승리-58형 자동차 등 생산
 - 용산1호 발전소 새로 건설 조업
 - 4.25여관 건설 공로자들에 국가표창 수여(2.14)
 - 7월22일공장에 3대혁명 붉은기 수여
 - 노동당 중앙위, 무역집배 연풍호 선원들에 감사 전달
 - 산암천발전소 완공

- 2. 16 • 김정일, 재일동포들에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전달
 - 이번 1억1,403만엔을 포함 총 143차에 걸쳐 439억 1,826만3천엔
 - 평양종합인쇄공장, 김정일 명제비 및 김정숙 현지말씀판 제막
- 2. 17 • 김정일 생일 경축 공연 진행(2.16 동평양극장 등)
- 2. 18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함경남도내 수력발전소, 통신무선화 실현
- 2. 19 • 김정일, 건설건재공업성 정무원들에 친핀
 - “힘있게 나아갑시다. '99.2.10 김정일”
 - 김정일, 대흥지도국 대동강자동차수리소 등에 감사 전달
- 2. 23 • 김정일, 산소열법에 의한 제철방법을 완성하고 공업화 하는데 기여한
 - 단위와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에게 감사
 - 조선동해수산협동조합연맹, 한-일 어업협상 진행 비난 성명(2.22)
- 2. 24 • 강원도 토지정리 사업에 위훈을 세운 단위들에 감사
 -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과학 기술 도서들과 녹화자료 전달
 - 금년중에 970여종 3,900여부의 여러분야 도서들과 5차에 걸쳐 73건의 녹화자료를 전달
- 2. 24
 - 여맹 중앙위 제30차 전원회의 개최(2.22~23)
 - 이영관이 일하는 기업소에 3대붉은기 수여
 - 태천3호 수력발전소 착공식(2.23)

- 2. 25 • 김정일, 평양 제1백화점 1층 작업반원 등에 감사
- 2. 26 • 김정일,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과학원 산하기관 등에 감사
 - 평성합성가죽공장, 김일성의 현지도 20돌 기념보고회(2.25)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제16차 전원회의(2.25)
- 2. 27 • 서해안 농촌들, 봄철 밀 보리 심기 시작
 - 김일성의 고려의학을 발전시킬 데 대한 노작 발표 20돌 기념보고회(2.26)
- 2. 28 • 김정일, 평양종합인쇄공장 등에 감사
 - 11월19일 연구소, 30만배 전자현미경 연구 완성
 - "전자광학 체계와 고압전원장치, 고진공 배기 및 냉각체계, 자동조종장치 등으로 구성된 이 전자현미경은 금속 및 미생물 세포를 비롯한 물질조직들을 30만배로 확대해서 직접 관찰, 촬영하며 전자계산기에 기억시킬 수 있게 되어 있음"
- 3. 1 • 김정일, 30만배 전자 현미경을 연구 완성한 과학자 등에 감사
- 3. 2 • 김정일, 과학원에 수송기재 전달(3.1)
 - "이것은 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연구 사업과 생활조건을더욱 원만히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적극 이바지 하도록 하려는 장군님의 높은 신임과 기대의 표시임"
 - 식수질 맞아 국토환경보호상 최종건 금년 계획 소개
 - 전국적으로 10만 3,500여 정보에 6억 6,500여만 그루의 각종 나무 식재 목표

- 3. 2 • 평양시 근로자들, 봄철 나무심기 쫓기모임
- 3. 3 • 황해남도, 밀보리 심기 성과 선전
- 3. 4 • 김정일, 보건성 일꾼 등에 감사
 - 북-중, 1999~2000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2.27 북경)
- 3. 5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분리 성명(3.3)
 - 함흥~마천 사이의 좁은철길 전기화 공사 착공(3.4)
- 3. 6 • 평양시 제1인민병원, 치료예방사업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의 70% 이상을 자체로 생산
- 3. 7 •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에 바다동물 표본들을 전달
 - 평양산원, 조산아 집중보육기(인큐베이터) 선전
 - “19년 동안에 삼태자를 비롯하여 500여명의 갓난아이가 자랐음”
- 3. 8 • 「국제부녀절」 89돌 기념 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
- 3. 9 • 김정일, 평성시 등 일꾼들과 근로자들에 감사
 - 인민군 부대들, 봄철 나무심기에서 과일나무와 경제적 가치가 큰나무 15만여 그루를 식재
 - 성진제강연합기업소, 김일성 현지지도 40돌 및 김정일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3.8)
 - 정주영씨 방북

- 3. 10 • 김정일, 이수복 순천화학전문학교 등에 감사 전달
 - 과학원 함흥분원, 소금생산의 공업화 등 과학기술 연구 개발 성과
 - 신계 미루벌, 감자 조직 배양 공장 건설중
- 3. 11 • 메아리음향사, 국제방송기구전에 마이크 등 음향기재 출품(98.11.일본)
 - 정주영씨 일행, 귀국
- 3. 12 • 김정일, 강원도 토지정리사업 현지도(3.11)
 - 함경남도 금야군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중 보도
- 3. 13 • 제대군인 1천명, 대홍단군 진출에 앞서 김일성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 국가표창 및 선물 수여식(3.12 4.25문화회관)
- 3. 14 •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위한 과학원 함흥분원 종업원 꺾기모임 (3.13)
- 3. 17 • 전국 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인민문화궁정에서 진행
 - 북한-유엔 아동기금, 협조 이행을 위한 합의서 체결
- 3. 18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 소집 발표
- 3. 19 • 김정일, 김형직사범대학에 바다동물 표본 전달
 - 동해에 사는 소매낙지 2마리(길이1.05M, 무게15kg)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대변인, 당국의 한자병용 사용 관련 담화 발표

- 3. 20 • 김정일, 조선컴퓨터센터 과학자 등에 감사
 -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3천여그루의 나무를 식재
 - 황해남도 농촌들, 버냉상모판 씨뿌리기 시작
 - 북·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가조인
 - 이인규외무성 부상/그리고리 카라신 외무성차관, 3.17. 평양

- 3. 21 • 전국 경제선동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 2천여명,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장에서경제선동 활동 진행
 - 전국축산혁신자 회의 개최(3.19~20)

- 3. 23 • 평안남도,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 10여일 동안에 873만여그루의 나무 식재, 76km 구간에 옹벽을 쌓고, 400여km의 도로 보수 및 개변, 450여개소의 다리와 소구조물들을 정비했다고 보도

- 3. 25 • 김일성의 용성기계연합총국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3.24)
 -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개막(인민문화궁전)(3.25~26)
 - 축하문(총리 홍성남), 보고문(최태복)

- 3. 26 •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보도(중방)
 -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지난해 12월 호소에 따라 10만 톤의 식량과 감자 생산을 위한 자급식량 10만톤을 제공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음"

- 3. 28 • 제14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최(3.23~27)

- 3. 29 •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여식 개최(3.28)
 - 올해 500명이 수상
 - 전국 리 농근맹 위원장 회의 개최(3.28)
- 3. 30 • 김정일, 함경남·북도 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
- 3. 31 • 대흥단군 종합농장 진출 여성청년들, 평양 출발
 - 환송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모임(3.30)
- 4. 1 • 황해남도 농촌들, 금년도 6,5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고 17,000여 정보의 부침땅을 개량 보도
 - 조평통 대변인, 정부의 대북지원창구 다원화조치 발표 비난 담화(3.31)
 - 만포시에 편의봉사시설 은정원 개원
- 4. 2 • 김정일 현지지도 관철위한 함경남북도 근로자들의 권기모임 (4.1 함흥)
 - 전국 근로단체 일꾼회의 개최(4.1 평양)
 - 안주시 상업관리소에 이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
 - 평양체육기구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 4. 3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김일성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4.1)

- 4. 4 • 군민대회 진행(4.3 원산시 개선광장)
 - 군대가 강원도 협농에 트랙터와 비료 등을 기증
 - 강서화장품공장과 강서비누공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에 바다동물 표본 전달
 - 조선 묘향 해운용선중개회사 대변인, 선박 충돌사고(3.31 스리랑카 해역에서 현대상선소속 배와의 충돌 사건) 관련 담화
 - “우리는 이번 사건이 북과 남의 민간 선박들 사이에 일어난 것이므로 여기에 당국은 물론 그 어떤 3국이나 다른 3자가 개입함이 없이 쌍방의 당사자들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함”

- 4. 5 • 군민연환 식수모임(4.4 문수봉혁명사적지)
 - 금수산기념궁전 주변에 15,000여 그루 식수
 - 보건절 맞아 보건성부상, 무상치료제 선전

- 4. 7 • 국토환경보호상에 장일선, 도시경영상에 최중건을 임명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 개막(만수대의사당)

- 4. 8 • 김정일, 김책공대 체신학부 교직원 등에 감사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 2일회의 진행
 - 첫째의안 “’98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99년 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 계속

- 4. 8 - 둘째의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양형섭 상임위 부위원장) 및 토론
- 4. 9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 폐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전문 발표
- 4. 11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3대장군 현지교서·말씀판 건립
- 4. 12 • 사리원시 길성포항, 올해 첫 여객수송 시작
 - 개성시 자남산 기슭의 [보존거리] 단장
- 4. 13 • 김일성 생일 즈음 모범적인 단위들에 국가표창 수여(4.12)
 - 하당 닭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4.12)
 - 전국학생소년들, 10대의 특대형 무궤도전차 증정
- 4. 14 • 김정일,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단위 및 청년돌격대원 등에 선물
 - 함흥후방가족 피복공장·모범적인 학교 등에 3대혁명붉은기 및 2중영예 붉은기와 영예 붉은기 수여
- 4. 15 • 김정일,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1억 1,990만엔 전달
 - 이제까지 144차에 걸쳐 440억 3,816만 3천엔 전달
 -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도서 및 설비들 전달
 - 신미리에 연풍관리국 타조목장 1단계 공사 완료
 - 최고인민위 상임위 정령, 모범적인 학교들에 이중영예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

- 4. 16 • 유람선 [평양 1호] 운항 시작(4.15)
- 4. 18 • 김정일, 동신 갯목생산사업소 일꾼 등에 감사
• 평북 선천군, 벼 냉상모판 씨뿌리기 성과
- 4. 20 • 강철전선에 진출하는 제대군인들에 국가표창 수여
•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담당 보조 총국장 평양 도착
- 4. 21 • 김정일,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에 참가한 청년동맹 일꾼 등에 감사
- 4. 23 • 자강도 2월26일공장에 김일성훈장 수여(4.20)
• 대동강 상류 덕천발전소 건설 착공
• 재령군내 청년동맹원들과 청년들, 영농전투를 위한 쉼기모임 (4.22)
• 중요초소(강철전선)에 진출하는 제대군인들, 평양 출발 (4.22~23)
- 4. 24 • 12월5일 청년광산, 조업 개시(4.23)
• 노동당 중앙위, 12월5일 청년광산 건설에 기여한 군인들과 종업원들에 축하문 전달
- 4. 26 • 각지 농근자들, 인민군 군인들에 첫물채소 공급
- 4. 27 • 김정일, 황해북도 신계 미루벌 협동농장에 농기계 전달
• 복합미생물기술연구소 조업(4.26)

- 4. 28 • 김정일, 송암명기 소목장 시찰
 - 황해북도 예성강에 큰 규모의 발전소 착공
 - 인민군, 대흥단군종합농장에 트랙터 기증(4.27)
 -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종업원들의 권기모임(4.27)
- 4. 29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강철생산 강화 결의 다짐
 - 황해북도 신계군~수안군~곡산군 연결 40여리 물거름 수송관 건설
- 4. 30 • 제2차 전국의학과학기술축전 개최(4.27~28)
- 5. 1 • 평양시 삼등지구, 수력발전소 착공식(4.30)
 - 평양시 송변전종합기업소 등 대형 변압기 개조
- 5. 2 • 김정일종합대학 전자계산기연구소 등, 주사식 전자현미경 연구 제작
- 5. 3 • 외무성, 수단 공화국 대외관계성과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 5. 4 • 청진청년역, 김정일이 보내준 운전기재 진단모임
 -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전기기관차 제작 박차
 - 평양무궤도전차공장, 무궤도전차 생산 성과 보도
- 5. 5 • 전국 우편통신부문 열성자회의 개최(5.3~4)
 - 참가자들에 국가표창 수여
- 5. 6 • 김정일, 인민경비대 제1216부대 양어장 시찰(보도)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3대혁명붉은기 유리섬유공장, 유리섬유 절연물 생산 주력
 -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5.5~6)

- 5. 7 • 김정일, 강원도의 농촌기계화사업 현지지도(보도)
 - 남양제염소에 정제소금공장 건설
 - 서해해운사업소 및 용강 쌀기름공장에 3대 혁명붉은기 수여
- 5. 8 •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전자계산기연구소 등에 감사
 - 각지 농촌에서 금년들어 100여만마리의 새끼 토끼 확보
 - 전국 여맹 누에치기 열성자회의 개최(5.7)
- 5. 10 • 강원도의 토지정리된 협동벌들, 관개수 공급 시작
 - 강원도내 농업근로자들, 벼 모내기 준비에 주력
- 5. 11 • 은하무역관리국 산하 대동강 수출피복공장에 김일성훈장 수여(5.10)
 - 평양철도국 부국장, 「철도절」 즈음 철도운수 부문의 강화 발전 다짐
 - "철도절을 맞아 우리 철도운송부문의 일꾼들과 수송진사들은 지금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5.18 무사고 정시전인 초과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림으로써 자랑찬 수송성과로써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짐"
 - 김영남, 쿠바 정부무역대표단과 담화(5.10)
 - 박성철, 중국 요녕성 단둥시 친선대표단과 담화(5.10)
 - 북-쿠바,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19차회의 개최(5.10)
 - 회의 의정서 및 '99년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 조인

- 5. 12 • 김정일, 숙천군 국영 사산농장 일꾼들에게 감사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설비 정비 보수 주력
 - 평양무래도전차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5.11)
- 5. 13 • 김정일, 남포제련종합기업소 등에 감사
 - 철도성 운수설계사업 창립 50돌 기념보고회(5.12)
- 5. 14 • 비류강 청년1호발전소 완공 조업(5.12)
 - 동해안과 서해 벌방지대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들에 이상기후로 가물이 들고 있다고 보도
 - 각지 농촌들에서 봄철기간 72,000여 정보에 풀판을 조성
- 5. 16 • 리비아 공업대표단, 평양 도착(5.15)
- 5. 17 • 김정일, 경공업성 신발공업관리국 등에 감사 전달
- 5. 18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 수산호텔 · 정춘합영회사 · 청년중앙회관 등, 김일성 · 김정일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 5. 20 • 김정일, 자동차 생산에 기여한 김철 소속부대 군인들과 가족들에 감사
 - 함경북도 새별군, 중소형발전소 건설 주력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단조직장, 공업용수 오수기름을 연료로 재생 하는데 성공 보도
 - 북-이란 친선주간 개막식(5.12 테헤란)

- 5. 21 • 기양지구 관개관리소 · 한문구 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5.20)
 - 노동신문 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농업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보도
- 5. 22 • 미국, 북한에 식량 40만톤 지원 결정 발표
 - 만포 청년역에 3대붉은기 수여
 - 조선 아·태 평화위 대변인, 현대 풍악호 문제와 관련 담화
 -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간급으로 진행되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끼어들어 방해를 놓고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책동을 중지해야 한다”
- 5. 23 • 김정일, 함경남도 대성회사 냉동운반선 대성 117호 선원들 등에 감사
 - 김정일의 용성기계연합총국 현지지도 15돌 기념보고회
 - 정부 과학기술대표단(김호헌 과학원 부원장), 러시아 향발(5.22)
- 5. 24 • 주북 세계식량계획대표부 성원들, 남포시 오신희농 농사일 지원
- 5. 25 • 북-이란 친선주간 개막(5.24 평양)
 - 일본 민주당소속 중의원 마츠모토 유이코 일행 평양 도착
 -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 이사장 일행 평양 도착
- 5. 26 • 염주군 학소리에 정제소금공장 건설
 - 강원도 농장벌의 첫 모내기 소식 보도
 - 평양 국제영화회관 등, 김부자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

- 5. 27 • 고원군 농기구공장 등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 황해남도 해안연선에 조수력발전소 건설 가동
- 5. 28 • 김정일, 당과 수령에 끝없는 충성심을 발휘한 기관·기업소들에 감사
- 5. 29 • 평안북도, 태천 3호발전소 언제공사 주력
 - 대홍단군에 진출한 제대군인 수백명이 결혼으로 새가정 마련
 - 교육상에 최기룡 해임, 변영립 임명(5.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 5. 30 •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도서 전달
 - 위원임산사업소 양강1호발전소 준공(5.28)
- 5. 31 • 철도 대표단(김용삼 철도상), 철도협조기구 제27차 상회의에 참가차 카자흐스탄 향발(5.31)
 - 자강도 초산군, 남방 과일나무인 굴나무 150여그루 재배 성공
- 6. 1 • 김정일, 성진제강연합기업소 종업원 가족들 등에 감사
 - 양강도 대홍단군, 감자심기 완료(5.29)
 - 정부 경제대표단(무역성 김봉익 부상), 리비아·불가리아·기네 방문차 평양 출발
- 6. 2 • 철도성 차량설계사업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6.1)
- 6. 3 • 김정일, 금강지도국 책임지도원 등에 감사
 -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6.1)

- 6. 4 • 김정일, 중구역 건물관리소 처녀관리공 4명에 감사
 - 김영남,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붕과 회담(6.3)
 - 전천음료가공공장에 이중 3대혁명 붉은기 수여.
 - 북-중, 홍콩특별행정구 주제 북한 총영사관 설치에 관한 협정 조인(6.1)
 - 주창준 북경 주제 대사와 양문창 중 외교부 부부장이 서명
 - 김영남·홍성남, 중국 총리 주용기 회견
 - 평안북도, 벼 모내기에 역량 집중
- 6. 5 • 강택민, 김영남 접견(6.3)
 - "강택민동지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당과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며 새로운 공정한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수립할 데 대해서 강조했음"
 - 김정일, 구장양어사업소와 용문대굴관리소에 수송기계 및 문화 기계 전달
 - 주북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 대표들, 강원도 협농들에 지원물자 제공
 -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김철식 제1부위원장), 러시아 향발
- 6. 6 • 김정일, 금성제1고등중학교에 교육문화기계 전달
 - 전천탄광종합기업소 병원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 6. 8 • 김정일, 12월5일 청년광산 조업에 기여한 평북도 인민위 등에 감사

- 6. 8 • 노동신문 논평 "선불질을 위한 계획적인 도발" 보도
 - 북한경비정 서해영해 침범 관련
- 6. 9 • 윤용권 소속공장 창립3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석암소년단 야영소에 영예의 붉은기 수여
- 6. 10 • 인민군 정달준 소속부대 등, 농촌 지원
- 6. 11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서해해상 남북충돌 규탄성명
 -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영해를 침범시킨 모든 전투합정들을 즉시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우리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를 사죄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높음을 당장 걷어치워야함."
 - "이번 해상도발사건으로 빚어진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 6. 12 • 수도건설에서 공로있는 일꾼들 등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6.10)
 - 조선옥류무역회사 대변인, 옥류관 서울분점 개설 계약 부인
- 6. 13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17차 전원회의(6.12)
- 6. 14 • 김정일, 조수력자원 개발 이용에 기여한 황해남도 용진군 등에 감사
- 6. 15 • 중방 논설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자력갱생의 강성대국"보도
 - "자력갱생의 원칙은 오늘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지침임"
 - 우리 군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북측 합정 격퇴를 "남측의 해상무장도발"이라고 주장
 - "괴뢰들의 무장도발로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생명이 엄중히 위협당하였으며, 우리측 합선 1척이 침몰되고 3척이 심히 파손되었음"

6. 15 - "괴뢰들이 우리 함선들을 상대로 무장도발을 감행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군사적 도전임"
 - "적들의 무장도발이 전면전으로 번져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군의 높은 인내성과 자제력의 결과임"
6. 16 • 김일성의 평양수산물백화점 현지지도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6.15)
 • 나진~선봉 국제통신센터 착공식(6.15)
6. 17 • 김정일, 자강도 인민경제 여러부문사업 현지지도
 • 장산수출품공장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
 •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공로 일꾼들과 청년돌격대원들에게 국가표창 수여
 • 북-러시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제3차회의 의정서 조인 (6.11)
6. 18 • 김정일, 5월계획을 완수한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 감사
 • 11월 28일공장 조업
 • 김정일이 지난 35년간 75만여리의 현지지도를 했다고 선전
 • 만수대 창작사 오동명이 일하는 제작단에 3중 3대혁명 붉은기 수여
 • 북-불가리아, 경제 및 과학기술 협의위 제21차회의 의정서 및 협정 조인(6.16, 소피아)
6. 19 • 김정일의 당사업 개시 3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 "모두다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 사리원시,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건설

- 6. 20 • 사리원사, 무궤도전차선 1단계공사 완공(6.19)
 - 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제1호 발표
 - "남조선 괴뢰들이 20일 또다시 전투함선들을 서해 우리측 영해깊이 침입시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음"

- 6. 21 • 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원기동 정머리 생산
 - 6월4일차량종합기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6.20)
 - 인민경제대학, 김부자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
 - 원산원동기공장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 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제2호 발표
 - "남조선 괴뢰들은 20일에 이어 21일 또다시 4차에 걸쳐 10여척의 전투함선들을 서해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켰음."
 - "우리는 우리측 영해에 전투함선들을 연이어 침입시키는 남조선 괴뢰들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에 대하여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킴"
 -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조사 관련 담화
 - "우리 해당기관은 금강산 관광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판짓을 하여 우리 법을 위반한 정채 불명의 여인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것임"
 - "남조선 통치배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해 보려는 어리석은 책동이 가져다 줄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여야 함"

- 6. 22 • 김정일, 강계청년발전소 등에 운전기재 전달
 - 과학대표단, 세계과학대회 참가차 헝가리 향발

- 6. 23 • 김정일,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연구소 일꾼들 등에 감사 전달
 - 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제3호 발표

6. 23 - "서해상에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에 계속 매어달리는 남조선 괴뢰들은 23일 8척의 전투함선들을 또 다시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켰음."
 - "우리는 계획적인 해상도발 행위를 연이어 연출하는 남조선 괴뢰들에게 또다시 주의를 환기시킴"
 • 고구려의 역사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학술토론회(인민대학습당)
6. 24 • 김종태 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일꾼 등에 국가표창 수여
6. 25 • 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제4호 발표
 - "남조선 괴뢰들은 24일과 25일 또다시 숲한 전투함선들을 우리측 영해에 침입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음."
 - "인민군 해군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가 거듭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공화국 영해에 대한 침범행위를 계속 감행한다면 심멸적인 타격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을 경고함."
 • 조선 아·태평화위원회 대변인,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 석방 관련 담화
 - "앞으로 남조선 당국이 아·태평화위와 현대그룹 사이에 뜨거운 동포애적 입장으로부터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관광사업에 끼어 들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러한 행위가 크든 작든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
6. 26 • 김정일, 외국문종합출판사 일꾼들 등에 감사 전달
 • 남북차관급당국회담(북경) 관련 보도
 - "이산가족문제가 아무리 좋게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긴장한 정세가 계속되는 속에서는 이행자체가 힘들 것임."
 • 제대군인들, 황해북도 미루벌의 신계, 곡산, 수안군과 강계청년발전소, 장자강발전소에 진출
 • 계순회, '99년 아시아 여자유도대회 우승(중국)

- 6. 27 • 김정일, 안변군 풍화협동농장 및 천삼협동농장 현지지도
 - 이용무, 현철해, 박재경, 이용철, 장성택 등 수행
 - 제4수력발전소 건설사업소, 언제 마감공사 종료
- 6. 28 • 총련 조선대학교 조국방문단 성원들,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지원
- 6. 29 • 김정일, 7월6일 철도종합공장 종업원들에게 전달
 - 평양수지건재공장에 2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
- 6. 30 • 김정일, 살림집 건설에 기여한 건설자들에 감사전달
 - 인민군 해군사령부, 보도 제5호 발표
 - "남조선 괴뢰들은 29일과 30일 우리측 영해에 전투함선을 불법 침입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음"
- 7. 1 • 남북차관급당국회담(북경) 관련 보도
 - "우리측 단장은 서해사태 관련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만한 대답 요구, 비료 10만톤 수송계획 제시, 첫배를 띄우는 날짜에 회담을 재개하여 기본문제토의에 들어갈 것 등을 제기하였음"
 - 김일성사망 5돌관련 연구토론회
 - 인민무력성, 사회안전성, 철도운수부문, 문화예술부문, 당간부 양성부문 등
 - 북·중 국경하천운항협조 합의서 조인(평양)
- 7. 2 • 함경북도 청진시 궤도전차 개통
- 7. 3 • 김정일, 남청진~봉천동 구간 궤도전차화 공사한 단위에 감사
 - 남청진~봉천동 구간 궤도전차화 공사 완공, 개통식(7.2)
 - 기상수문국,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업생산 영향 발표
 - 서해안지역 가뭄·고온현상, 동해안지역 냉해현상

- 7. 3 • 농업과학원 농업기계화연구소 실장 오경조에 노력영웅 칭호 수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북측단장 박영수, 회담 길렬관련 기자회견
 - "남측이 빠른 시일안에 비료를 실은 첫배를 띄운다면 그날에 다시 남측과 마주앉아 상정된 기본문제를 토의할 수 있음"
- 7. 4 • 묘향산에 김일성 시 "묘향산 가을날에" 글발 제막식
- 7. 5 • 김정일, 선교편직공장 등 원군미품 발양 단위 및 일꾼에 감사
- 7. 6 • 가뭄·고온·냉한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극심' 보도
- 7. 7 • 중국 중·조 우호협회, '중·조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 38돌 연회 마련(베이징)
- 7. 9 • 김정일, 국토관리사업 모범 보인 만포시, 구성시 등에 감사 전달
 - 김정일 지침 관철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 평양 금성거리에 '충효의 대기넘비 영생탑' 건립
- 7. 10 •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만포시 등에 감사
 - 미 상원의원 로버트 톨리첼리 일행 평양도착
- 7. 11 • 김정일, 보건 1국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감사
- 7. 12 • 금강산 관광 중단 책임은 남한 당국에 있다고 주장
 - "남조선 당국자들은 관광 중단 기일이 더해질수록 온 민족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임"
- 7. 14 • 김정일,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 현지도(7.13)
 - 안변군 풍화·천삼협농 농업근로자들,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쉼기모임(7.12~13)
 - 초산군 송묘청년발전소 조업(7.13)

- 7. 14 • 주북 세계식량계획 · 유엔개발계획 · 유엔아동기금 대표단, 백두 산지구 및 대흥단군 종합농장 참관(7.11~13)
- 7. 15 • 김정일, 사리원시 일꾼들 등에 감사
- 7. 16 • 김정일, 평양 안학교등중학교에 새 품종의 토끼 전달
 - 쿠바의 가금업 · 축산업관련 대북 무상지원물자 평양 도착(7.13)
 - 청진수산사업소 진료소, 고려약과 주사약 생산에 주력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암모니아 생산공정에 제1단계 전자계 산기화 도입
 -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현대 통일소' 절반 폐사 비난 담화 - 소 폐사는 국정원 행위 주장
- 7. 17 • 내각 일꾼들과 종업원 및 인민군 장병들,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지원
 - 함경남도 금야강발전소 가물막이 공사 완공
- 7. 18 • 전국에 2,300여개의 축산작업반 및 분조 조직
- 7. 19 • 5.18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 발단 20돌 기념 철도성 보고회
 - 신의주 화장품공장, 화장품 생산 성과
- 7. 20 • 북한 각지 농촌들, 장마철 농작물 피해막이 대책 주력
 - 각지 농기계 및 농기계 부속품공장들, 농기계와 부속품 생산 성과
 - 북한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집짐승 사육 주력
 -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평양 도착
 - 평안남도 청년들격대원들,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성과
- 7. 21 •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도서 전달
 - 자강도 소재 전천착암기공장 창립 30돌 기념보고회
 - 7월22일공장 창립30돌 기념보고회 개최

- 7. 22 • 원산농업대학, 물논후치 및 비료 주는 기계 연구 완성
 - 김용순, 방북중인 일본 신사회당 및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공동 대표단과 담화
- 7. 23 • 김정일, 영농장비자재 보장에 모범을 보인 금성뜨락또르 종합 공장 등에 감사 전달
 - 제대군인들, 중요초소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 보도
- 7. 25 •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에 회귀 바다동물 표본 전달
 - 김정일, 군민일치 미풍발양한 순천시 금산동 사무장 등에 감사
- 7. 26 • 황해북도 수안군 언진산 발전소 조업식 진행
 - 북한-중국민항대표단, 평양~심양 정기항로 개설 합의·서명(평양)
- 7. 27 • 김정일, 만수대 창작사와 무역성 일꾼들에 감사
 - 황북도 신계 미루벌 율리청년저수지 준공식
 - 해산시 강구발전소 조업식
 - 중방 정론 "총진군의 북소리" 보도
 - 경제활성화 궤도에 들어섰다고 주장
- 7. 28 • 평양시 송변전종합기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에 국가표창 수여식
 - 황북도 미루벌 협동농장들에 진출 제대군인 200명, 합동걸혼식
 - 유엔아동기금, 어린이 음료수 개발설비 기증식
- 7. 29 • '주체의 벗' 일본 대표단, 평양 도착
 - 평양시 청년건설사단 중화군연대 청년건설자들,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성과 보도
 - 중방, 인민경제의 부문별 전반적 생산지표 증가 보도
 - 신임 외무성 부상 오성철 임명 확인

- 7. 30 • 김일성종합대학 합성촉매연구소 등의 과학·기술자들, 혁명사적물 보존 관련 산소제거장치와 수소-니켈촉전지 등 개발
 - 북한 첫 전기기관차 '붉은기-1호', 38년간 무사고 보도
- 7. 31 • 강계청년발전소 3호발전직장 2호발전기에 영웅칭호 수여
 - 황남도 바닷가양식부문일꾼 열성자회의(해주) 진행
 - 아·태평화위,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관련 담화
 - 남한 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관여 비난
 - 중방, 황남도·강원도·개성 지역 등 호우 보도
- 8. 1 • 김일성·김정일의 평북 장시멘트공장 현지지도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중방, 통알감자(씨감자) 파종기 개발 보도
- 8. 2 •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촉매연구소 연구집단 등에 감사
 - 중통, 대외경제분쟁해결 관련 '대외경제중재법' 채택 보도
 - 중방, 황해도·강원도 집중 호우로 농경지 피해 보도
 - 중통, 황해도 등에서 집중호우로 4만여정보 농경지 침수 보도
- 8. 3 • 중방, 태풍경보와 해상경보 보도
 - 북-미 고위급회담(스위스 제네바) 개막
- 8. 4 • 북-미 고위급회담(8.3~4, 스위스, 제네바) 종료
- 8. 5 • 김정일의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모범보인 청년돌격대원 등에 선물 전달
 - 노동신문 사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심화 발전시켜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보도
 - 중방, 각도 체신일꾼 회의 개최 보도
 - 중방,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업생산에 막대한 피해 보도
 - 황해도 4만여 정보 이상 농경지 침수 등 피해

- 8. 5 • 대성산관리국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
 -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일행, 신의주 도착
 - 4자회담 6차 본회담(스위스 제네바) 개막
 - 김계관 북측 수석대표,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체결 주장 (기조발언)
- 8. 6 • 중방 정론 “자력갱생의 대진군” 보도
 - 중방,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남한 농경지 유실 등 피해 심각 보도
- 8. 7 • 김정일,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문화기재 전달(8.5)
 - 백남순, 방북 WFP 사무국장 일행과 담화(8.6)
 - 여러 중앙기관 및 단위들·내각 성 및 도 일꾼들, 철도운수부문 지원 주력
 - 청년들격대원들, 평양~남포 고속도로에 38개 구조물 완공
 - 중방 논설 “제2의 친리마대진군을 더욱 다그치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보도
 - 국제 강냉이 및 밀 개량센터 대표단, 평양 도착
- 8. 8 • 8~9월 인민체력 검정월간 개막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장에 세멘트 지원
- 8. 10 • 북-일 관계 관련 ‘정부 성명’ 발표
 -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과거 죄행 사죄·보상, 대결정책 중지 등 일본에 대해 3대 원칙적 입장 제시
 -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가 민주노총 대표단 등, 평양 도착
- 8. 12 • 김정일, 대흥단군 종합농장·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현지지도
 - 김국태·김용순·장성택 동행
 -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 양각도 축구경기장에서 진행
 - 7월22일 공장 및 초산군 양토농장에서 김일성·김정일 현지 말씀판 건립 제막식

- 8. 13 • 김정일,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성 중앙기관
일꾼들 등에 선물 전달
 -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개막
 -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
 - 범청학련 통일농구대회,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
 - 남북 노동자연환모임,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운동장에서 진행
- 8. 14 • 김정일, 문화성 등 경제선동 대원들에 감사(8.13)
 - 민족대토론회 개최 및 북·남·해외 통일운동단체 대표단 공동
성명 (8.5, 베이징) 보도
 - 직총·민주노총, 합의서 채택
 - 통일대토론회 개최·2000 노동자축구대회 개최노력 등
- 8. 15 •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교육설비 전달
- 8. 16 • 김정일, 금속공업 지원사업에 모범 보인 단위·일꾼들에 감사
- 8. 17 • 외무성 대변인, 남한당국의 햇볕정책관련 성명
 - 햇볕정책은 미국의 평화적 이행 전략의 변종이라고 비난
 - 중방, '임진강수해 남북공동 방지' 위한 남북실무접촉 제의
(8.11) 거부 시사
 - 남북 공동대책 운운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녹찾히기 위한 요설에 불과하다고 주장
- 8. 19 • 김정일, 라효진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의 양어장
현지도
 - 김국태, 김용순, 박용석 등 동행

- 8. 19 • 김정일, 지방산업 공장들을 잘 돌리고 있는 전천군 및 안악군 당위원회 일꾼 등 여러 단위들에 감사전달
 - 조선컴퓨터센터,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 일-조 오이다현 대표단, 평양 도착
- 8. 21 • 김정일, 평양도시설계사업소 기사장 등에 감사전달
 - 청년절기념 전국학생청년 기동선동대,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장에서 경연(8.13~19) 및 총화(8.20) 보도
 - 대흥단군과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근로자들, 김정일 현지지도 관철모임 진행
 - 김일성의 평안남도 인민병원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
- 8. 23 • 김정일,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家禽목장 시찰 보도
 - 김국태·김용순·박용석·장성택 등 수행
- 8. 24 • 직총 중앙위 제40차 전원회의 진행
 - 김정일의 국제친선전람관 현지지도 20돌 기념보고회
 - 노동신문 논평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
 - 경수로 공사 촉구 및 북-미 기본합의문 폐기 위협
 - 일-조 우호 후꾸오까현 의회대표단, 평양 도착
 - 만수대 김일성 동상 참배
- 8. 25 • 김정일, 신태현이 일하는 공장과 평양 안악고등중학교에 토끼 수송기재들 전달
 - 북한 경제학회 제1차회의(8.24~25, 인민대학습당) 진행
 - 경제과학 분야 연구성과와 경제학 교육사업 평가 및 연구사·교원들의 자질향상 문제 등을 토의
 - 전국 농근맹 해설강사회의 개최
 - 김정일의 혁명활동 및 경제선동·해설강의 등을 토의
 - 인민무력성 및 인민군 부대들, 천리마제강기업소에 파철 지원

- 8. 26 • 김정일, 위생편의 봉사사업에서 모범 보인 상업성과 30여개 시·군 편의봉사 일꾼들에 감사 전달
 - 국가품질감독체계 창립 50돌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 각종 생산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강화 촉구
 - 여맹, 제5기 31차 전원회의 진행
 - 과학원 철도과학분원 철도재료연구소, 새로운 용접방법 연구개발
 - 미국하원 의원 '토니 홀', 평양 도착
- 8. 27 • 평방, 5년간 인민경제 부문에 12만여 개의 청년돌격대 투입 선전
- 8. 28 • 김정일, 칠리광산에 새 가정을 이룬 청년6쌍에 결혼상 전달
 - 김일성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
- 8. 29 • 김정일, 당과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인민군 광연찬 소속 구분대 군인 등에 감사 전달
 - 김정일,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에 농기계들과 운전기재 전달
- 8. 30 • 세계식량계획, 북한에 소형자동차 등 협조물자 전달(사리원)
 - 청년절 즈음 전국 200여 개 단위일꾼들,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장 지원보도
- 8. 31 • 이탈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대표단, 평양도착
 - 만수대 김일성동상 참배
- 9. 1 • 김정일, 차주현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양어사업소 양어장 현지 시찰 보도
 - 김국태·김기남·김용순 등 동행
 - 김정일, 꿀을 대량 생산한 수매양정성 일꾼 등에 감사
 - 김일성의 평안남도 양덕국토전문학교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9. 2 • 김정일, 해산시 혁명사적 간부학교에 교육 및 문화기재 전달
 - 인민군 총참모부,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선포(특별 보도)
 - “서해 북방한계선은 무효이며,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고 주장
- 9. 4 • 김정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조선컴퓨터센터 등에 감사 전달
 - 황해제철소, 김일성의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9.3)
 - 제5차 포스트컵 컴퓨터바둑프로그램 경기대회(9.3~4,도쿄) 우승
- 9. 5 • 노동당 중앙위, 화물선 삼일포호 선원들에 감사문 전달
- 9. 7 • 김정일, 신천박물관에 참관 교양사업 설비전달
 - 안주지구 석탄지하가스 발생장·가스발전소 준공식 진행
 - 무역성대표단, 77개 그룹 각료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
- 9. 9 • 평양신발공장 등, 김일성 현지교시관 제막식 진행
- 9. 10 • 성간군 성하3호발전소 등 조업
- 9. 11 • 교육성·평양종합방직공장 등 내각과 각지 기관들, ‘정성옥 투쟁정신 따라배우기’ 결의모임(9.10~11) 진행
- 9. 12 • 김정일, 인민군대 원호 보통강구역 협동식당 관리위원회 종업원 등에 감사 전달
 - 북·미 베를린 고위급 회담(9.7~12) 타결·종료
 - 공동 언론발표문 발표
- 9. 13 • 남포지구에 대홍항 부두 조업식 진행
- 9. 14 • 김정일, 자강도내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 현지도(9.12~14)
 - 연형묵·김국태·김기남·김용순 등 동행

- 9. 14 • 김일성의 서포닭공장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중국 정부경제무역대표단, 평양 도착
 - 김일성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 일본 구제운동위원회 대표단, 평양 도착
- 9. 15 • 김정일, 상업절(9.15) 즈음 봉사사업에 모범 보인 천리마구역 종합식당 등 여러 단위들에 감사전달
- 9. 16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태국대사에 조인철 임명
 - 국토환경보호성·김일성종합대학 등 내각과 각지 기관들, '정성옥 투쟁정신 따라배우기' 결의모임 진행
 - 전국 「농근맹」 경제선동경연(9.11~16, 평양) 진행
- 9. 17 • 김정일, 철도성 차량설계사업소 설계원 등에 감사 전달
- 9. 18 • 김정일, 정성옥에 보낸 친필서한(9.10) 보도
 - “우리 조선의 훌륭한 딸입니다. 1999년 9월 10일 김정일”
 - 조국통일연구원, 남한민생 비난백서 발표(9.17)
 - 몽골 대외관계성 대표단, 평양 도착
 - 김일성동상·김정숙동상 참배
- 9. 19 • 용천군 신암협동농장 근로자들, 벼가을걷이 위한 꺾기모임 진행
 - 자강도 산업현장별 생산성 향상에 주력
 - 북한-이란 보도자료 교환 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테헤란)
- 9. 20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신임 채취공업상에 ‘손종호’ 임명
 - 김정일의 평양~남포 고속도로 경제선동 활동을 벌인 21개 시·군 기동예술선동대원들에 보내는 감사 전달모임 진행 (9.21)
- 9. 21 • 보건상 김수학, 제17차 세계보건기구 동남아 지역국 보건상회의 (미얀마) 참가차 평양 출발

9. 21 • 북한 공보위원회-이집트 공보성, 공보분야 협정 조인(9.11, 카이로)
 보도
- 중방, 미국의 전면적이며 실질적인 제재해제 조치 촉구 보도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공식발표(9.17) 관련 첫 반응
 - 김정일,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등에 감사
 - 중방,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발표 보도
9. 23 • 김정일, 안주지구 석탄지하가스화공사에 기여한 제2화력발전소
 건설사업소 등에 감사전달
- 무역은행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진행
 - 홍성남·한성룡 등 참가
 - 신의주화학제품공장, 창립50돌 기념보고회 진행
9. 24 • 김정일, 함경남도 공업부문 사업 현지지도(9.22~24)
- 전병호·김국태·이태남 등 수행
 - 외교부 대변인,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관련 기자회견
9. 25 • 김정일, 청년중앙예술선전대 등에 문화기재 전달
- 백남순 외무상, 5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기자회견(유엔본부)
 - 미사일 시험발사 유보 재확인 등
9. 26 • 구성복 무역성 부상, 77그룹 각료회의 참가 연설(9.16, 모로코) 보도
9. 28 •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판문점 통해 평양 도착
- 김용순, 방북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담화
 -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9.28~29, 평양) 진행
 - 김용순·정주영 등 관람

- 9. 28 • 강남군 농기계제작소 종업원들, 농기계수리 정비축구 권기대회 진행
 - 제10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9.21~28) 폐막
- 9. 29 • 「청년동맹」 모범 초급일꾼대회(9.29~30) 개막
 - 최태복 · 양형섭 · 김종린 등 참가
 -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착공식
 - 김용순 · 정주영 등 참가
 - 방북 정주영 일행, 정성옥 가정 방문
 - 과학원 전기연구소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KEDO 고위급 전문가협상 대표단, 경수로건설문제 협의차 평양 도착
- 9. 30 • 김정일, 군민일치 모범보인 인민군 이풍길 소속부대 종업원 등에 감사 전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문화상에 '강능수' 임명
- 10. 1 • 김정일, 방북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 정몽헌 회장과 오찬 접견
 - 김용순 · 송호경 배석
- 10. 2 • 김정일, 삼석수출피복공장 일꾼들과 사회안전원들에 감사 전달 (10.1)
 -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제2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10.1)
 - 조창덕 부총리 보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김일주가 일하는 공장 등에 2중 3대혁명 붉은기 수여
 - 99세계원예박람회(5.1~10.31, 중국 곤명), '김정일화' 대상 수여 보도
 - 제대군인 청년들, 대흥단군 진출 평양 환송식
 - 조명록 · 김종린 · 광범기 등 참가

- 10. 2 • 철도성 대표단, 북-러 운수분과 회의(모스크바) 참석차 평양 출발
- 10. 4 • 북한~방북 앙골라 정부대표단, 보건분야 협조 회담록 조인(평양)
 - 노동신문 논평 “길코 혜택이 아니다” 보도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발표 관련 반응
- 10. 5 • 중-조우호협회 중국측 대표단(단장 : 이숙쟁 회장), 평양 도착
 - 철도운수 부문 청년진위들의 권기모임 진행
 - 의원동맹 대표단(단장 : 장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국제의 회동맹(IPU) 제102차 총회(베를린) 참가차 평양 출발
 - 창광봉사관리국, 감자음식전시회(인민문화궁전) 진행
 - 예멘에서 북한 상품전람회 개막(9.28) 보도
 - 스웨덴 맑스레닌주의 공산당 혁명가 대표단, 평양 도착
- 10. 6 • 김정일, 인민군 제757군부대들 발전소 건설사업 현지지도
 - 조명록 · 김영춘 · 김일철 등 수행
 - 김영남, 방북 중국 외교부장 ‘당가선’과 회담
 - 해주 수양산 바위에 김정일 칭송 글발 제막식 진행
 -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 주체 88년 10월 8일 새김”
 - 각도, 토끼사육 열성자회의 진행 보도
- 10. 7 • 김정일, 평양 제1고등중학교에 교육설비 전달전달 모임
- 10. 8 •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 추대 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
 - 김영남 · 조명록 · 홍성남 등 참가, 진병호 보고
 - 남강발전소, 언제 준공식 진행
 - 광범기 · 강현수 · 조윤희 등 참가
- 10. 9 • 김정일, 대흥단군 종합농장에 보내는 운전기재 등 전달모임(10.8)
 - 황해북도 황주군, 백두산 3대장군 혁명사적비 ‘길이 전하라 황주땅에 새겨진 불멸의 업적이어’ 제막식(10.8)

- 10. 9 •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명당내화벽돌 생산공정 조업식
 - 파키스탄 인민당 대표단(단장 : 보카리 대외관계위원장) 평양 도착
 - 러시아 까렐리아 조선친선협회 대표단, 평양 도착
- 10.10 • 김정일, 인민대학습당에 도서 및 녹화자료 등 전달
 -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 통신위성 중계방영 개시
- 10.11 • 김정일, 영예군인들을 도와준 인민경비대 한천호 소속부대 일꾼 등에 감사 전달
 - 북한-말리,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인(평양)
 - 강정모 무역상 · 씨디베 외무상 서명
 - 강원도 천내 정제소금공장 조업식
 - 최원익 · 고종덕 등 참가
 - 평남 북창군, 정로양어장 2단계 양어못 건설 보도
 - 길주군내 중형발전소들, 전력 생산 성과 보도
 - 함남 지방산업공장들, 인민소비품 생산에 혁신 보도
- 10.12 • 함경남도 금야군 '광명성제염소' 준공식
 - 최태복 · 조창덕 · 이태남 등 참가
 - 백남순, 방북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보 '히바따' 일행과 담화
 -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보 '히바따' 일행, 평양 도착
 - 함경북도 선홍식료공장 조업식
 - 평양시 낙랑구역, 가을걷이에 주력 보도
 - 북한-우크라이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9.10) 보도
 - 황해북도, 금년 13개 중소형발전소 건설 보도
 - 평안북도, 토지사업 본격 개시 보도
- 10.13 • 김정일, 새로 건설된 '광명성제염소(황해남도 금야군)' 시찰
 - 김국태 · 김기남 · 김용순 등 수행

- 10.13 • 황해남도 연안정제소금공장 준공식 진행
 - 박봉주 · 김운기 · 권춘학 등 참가
- 10.14 • 중방, 벼 추수 80% 진행(10.11) 보도
 - 중방, 각지에서 파철 수집 주력 보도
- 10.15 • 김정일, 평양시 창광봉사관리국 일꾼 등에 감사 전달
- 10.16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평안북도 8월26일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기계화 분사업소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10.14)
 - 김정일, 신흥양어장에 물고기와 운전기재 선물 전달모임 진행 (10.15)
- 10.17 •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학술연구집단, 평양시 은정구역 토성 발굴 보도
- 10.18 • 강계포도수출공장, 생산 정상화 보도
- 10.19 • 김정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에 동원된 군인 등에 감사 전달
 - 제18차 윤이상음악회(10.19~21) 개막
- 10.19 • 김일성의 영변군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새날전기공장 등, 김일성 현지교시 및 김정일 현지말씀판 제막식 진행
 - 북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개막(10.9, 체코 프라하) 보도
- 10.20 • 제3차 '민족면역의 날' 개막모임 진행
 - 개막모임 참가자들, 김일성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
 - 보건상 김수학 개막사, 주북 UNICEF 사무소 대표 · WHO 면역프로그램 고문 등 축하연설

- 10.20 • 외무성 대변인, 북·미 기본합의문 발표 5주년(10.21) 관련 담화
 - 미국에 대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신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
 - 성천광산 장림1호 발전소 준공
 - 북창·순천·안주 등 석탄공업부문, 석탄생산 성과 보도
- 10.21 • 해주~용당간 도로 개진 확장 개통식 진행
 - 최종건·김운기 등 참가
 - 은산군 장선강 청년발전소 준공식 진행
 - 이길송 등 참가
 - 유엔개발계획, 농경지 복구와 염전건설 협조물자 기증식(평양) 진행
 - 주북 유엔개발계획 임시대리대표 '조진센' 등 참가
 - 중방, 전국 각지 벼 가을걷이 종료(10.19)
 - 중방, 황해남도 감 수확 한창 보도
 - 청년돌격대, 평양에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탑 건설 성과
- 10.22 • 과학기술총연맹·중앙토끼협회 주최 전국 토끼사양부문 과학기술 발표회(10.22~22, 평양) 개최
 - 토끼 사육관련 100여편 과학기술논문 발표
 - 일본 홋카이도 일-조 우호친선대표단(단장 : 곶나야 회장), 원산 도착
 - 북한도서 및 수공예품 전람회 러시아에서 개막(10.12) 보도
- 10.23 • 김정일, 건설건재공업성 건재공업설계사업소 등에 감사 전달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 진출 제대군인들, 평양역 출발
 - 김일철·김기남·곽범기·손종호 등 환송
 - 북한 사진 및 미술·수공예품 전람회 이집트에서 개막(10.14) 보도

- 10.24 • 북한 도서·사진 및 수예품 진람회, 페루 치칼라요 종합대에서 개막(10.14) 보도
- 4월25일기계공장 노동자들, 착암기 생산 주력 보도
 - 황해북도 신계군, 국토관리사업 주력
 - 노동신문 글 “강권과 전횡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보도
 - 유엔 창립(10.24) 관련 유엔활동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평양종합방직공장, 천 생산 혁신 보도
 -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전력생산 혁신 보도
 - 강동탄광종합기업소 등, 겨울철 석탄생산 혁신 보도
- 10.25 • 함경북도당위, 국토관리 사업에 주력 보도
- 남포시 청년건설사단, 평양~남포 고속도로 건설 성과 보도
 - 평안북도내 양어사업소, 새끼물고기 생산 성과 보도
- 10.26 • 김정일의 광명성제염소 건설자·지원자들에 감사전달 모임 진행
- 이태남·김달현 등 참가
 - 개천시 개천체육관·개천경기장 개관식 진행
 - 이길송·이동호 등 참가
 - 평양 어린이옷공장 일꾼들, 옷 생산 성과 보도
 - 강동탄광기업소, 석탄생산 혁신 보도
 - 만포시 등공5호발전소, 전력생산 주력 보도
 - 동립의료기구공장, 의료기구 생산 성과 보도
 - 장풍군, 양어장 건설 성과 보도
- 10.27 • 김정일, 평안남도 덕천시 박영호·이옥화 부부로부터 “고아20명을 키우며 파철을 수집, 자동차 생산에 기여한다”는 편지 받고 보낸 ‘친필서한’ 보도
- “훌륭합니다. 1999년 10월 20일. 김정일”
 - 김정일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일꾼 등에 감사 전달

- 10.27 • 장산광산, 내화벽돌 생산 성과 보도
 - 사리원농기구공장, 농기구 생산 성과 보도
 - 길주화학일용품공장, 판유리 생산 성과 보도
 - 남흥청년연합기업소, 비료생산 성과 보도
- 10.28 • 김정일, 엽을룡이 지배인으로 일하는 식료공장 현지지도
 - 과학원 수산과학분원 개원 30돌 기념보고회 진행
 - 최태복·이광호 등 참가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생산성과 보도
 - 영대탄광, 채굴설비 자체해결 생산 보장 보도
- 10.29 • 김정일, 평남 숙천군 양정사업소 등의 농업근로자들에 감사전달
 - 평남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 마그네시아클링커 분공장 생산 성과 보도
 - 황해남도 가을 밀보리 심기 완료 보도
- 10.30 • 김정일, 남포시 유치원에 감 선물(10.28)
 - 전국 토끼기르기 경합토론회 및 품평회 개최(10.29)
 - 「청년동맹」 제18차 전원회의 개최
 - 리비아 친선대표단 평양 도착
- 10.31 • 김정일, 엽을룡이 사업하는 식료공장에 특별감사 전달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새 유압식 굴착기 제작
- 11. 2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 3대혁명 붉은 기를 수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 참석자 김유봉 등에 노력영웅 칭호 수여(10.28)

- 11. 3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체육성을 내각 체육지도위원회로 변경
 -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 개막
 - 김영남·홍성남 등 참석
 - 노동신문 사설 “강성대국 건설사에 빛날 제2의 대진군 선구자대회” 보도
 - 성천강에 33개의 계단식 중소형발전소 건설중 보도
- 11. 6 • 중국 강소성 농업과학원 농업기술자 친선대표단, 평양 도착
 -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94.10.21)에 따라 KEDO를 통해 중유 50 만톤을 전량 납입
- 11. 7 • 신의주화장품공장 착공식 진행
 - * 김정일이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여 과업 제시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의 혁명업적찬양 총서 제15권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의 빛나는 해결’ 출판
 - 대흥단군 종합농장, 흐름식 공정 등 감자종합가공연구 도입 성공
- 11. 8 •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바닥공사가 최근 마무리되었다고 보도
 - 제2의 천리마 대진군호 전기기관차 생산
- 11. 9 • 개천시 대각갑문~태성호 자연흐름물길 건설 착공식 진행
- 11.10 • 김정일, 대흥청년광업종합기업소 등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 11.13 • 과학원대표단(단장: 원장 이광호), 아·태지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우주운항에 관한 제2차 상급회의(인디아) 참가차 평양 출발
 - 중국 과학원대표단(단장 : 부원장 허지홍), 평양 도착
- 11.14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시 승호구역 금육리 채석장에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을 발굴

- 11.14 • 만수대창작사 차상일동무가 사업하는 제작단 일군들과 종업원들,
3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 11.15 • 청진시 포항지구 소재 '충성의 청진정제소금공장' 조업식 진행
•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일행, 「아·태평화위」 초청에 의해 북한
방문
- 11.16 • 평안남도 일꾼 및 당원들, 대동강과 칭천강 기슭의 공장기업소
구내·서해 벌방 산간지대 등에 1천여개의 양어못 건설
• 농업성 부상 김영숙, FA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에 감사표시
- 11.17 • 만경대영예군인만년필공장·김책공업종합대학 종업원 및 교직원·
학생들, 우리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결의모임
각각 진행
- 11.18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자강도농촌경리위 등, 우리
시대의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결의모임 각각 진행
• 「아·태평화위」·조선금강산관광총회사, 현대그룹앞으로
금강산관광 1주년 축전 발송
- 11.19 • 내각체육지도위원회·송전선건설사업소 종업원 등, 우리시대 영
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결의모임 진행
• 김정일의 전국국토관리부문 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 15돌 기념일
- 11.20 • 함흥철도국·평양제사공장·수력발전소건설종합기업소 종업원들,
우리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결의모임 진행
• 전국 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개최(18~20)

- 11.21 • 함경북도 소재 광덕언제공사 준공식 진행
- 강계포도수출공장 · 평양도시경영전문학교 종업원 및 교직원들, 우리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결의모임 진행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공무보수부문 ·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종업원 및 과학 · 기술자들, 우리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결의모임 진행
 - 6.4 차량종합기업소 · 괴산청년광산 · 대성 9.14 피복공장 종업원들, 우리시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결의모임 진행
- 11.23 • 제2의 천리마대진군호 전기기관차를 철도운수부문에 전달하는 모임 개최
- 함경북도 소재 부령군 형제3호 발전소 조업식 진행
 - 대리비아아랍사회주의 인민공동체 대표단(단장 : 전국인민위원회 청년 및 대중체육비서 모하마드 마흐 무드 알 시자드), 평양 도착
- 11.24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전자공업성을 내올데 대하여’ 발표
- 외무성대표단(단장 : 유럽국장 김춘국), EU 의장국인 핀란드 외무부의 세보로우 부국장과 제2차 정치대화 개최(브뤼셀)
- 11.26 • 평양시 · 자강도 · 양강도 · 함경남북도 · 황남 및 철도성 등,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회의를 각각 진행
- 함북 부령군 급강2호발전소 조업식 진행
 -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대학 과학자들과 문평제련소 기술자 등에게 감사 전달
 - 「아 · 태평화위」 대표단(단장 : 부위원장 김형우), 미국 방문차 평양 출발

- 11.28 • 김정일의 함경북도내 여러부문사업 현지도 1돐에 즈음하여
건설된 청진시 소재 직하발전소 조업식 진행
- 11.30 • 김정일 노작 ‘노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10돐 기념보고회 개최
 - 함경북도 부령군 금강 3호 발전소 조업식 진행
 - 조선대외문화연합회 · 조선-쿠바동결위원회 · 쿠바제인민간의
친선협회 · 조선통일지지쿠바위원회, 친선과 연대성에 관한 협정
체결(평양)
- 12. 1 •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과학자 · 기술자 등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
위학직 수여식 진행
 - 국토관리사업에 모범을 보인 강원도 고산군 인민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전달 모임 개최
 - 자민당 · 민주당 · 공명당 · 공산당 · 사민당 · 개혁구락부 · 무소속
등 일본 정당대표단(단장 : 전 총리 겐 중의원 의원 무라야마 도미
이치), 평양 도착
- 12. 2 • 전국근로단체 교양모범일군대회 개막식 진행
 - 창광상점, 항일혁명 투사들과 유가족들 · 영예군인들을 도와주고
있는 일꾼 · 종업원들에게 김정일이 보낸 감사 전달모임 개최
 - 미국대통령 동생 대중음악가수 ‘로저 클린턴’과 그 일행, 「아 · 태
평화위」 초청으로 평양 도착
- 12. 3 • 함경북도 부령군 금강 5호 발전소 조업식 진행
 - 김용순,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수상과 공동성명 발표
- 12. 4 • 「농근맹」 중앙위 제36차 전원회의 개최
 - 북측대표단(단장 : 이사장 한국승), 조 · 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52차 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

- 12. 5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583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양어장 시찰
 - 함북 소재 부령군 형제2호발전소 조업식 진행
 - ‘로저 클린턴’ 일행, 북한과 봉화예술극장에서 합동공연 진행
- 12. 6 • 평안남도 근로자들, 온천양어장 개진확장공사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꺾기모임 개최
 - 전국고속도 질삭경기참가자들의 결의모임 진행
- 12. 9 • 김정일이 자강도 낭림군 및 강계시의 상업관리소에 보낸 운전기재들과 문화기재들을 전달하는 모임 개최
 - 駐北 몽골대사, 몽골정부의 대북지원물자를 해당부문 일군들에게 전달
- 12.10 • 소금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한 금성·광양만·다사·귀성제염소의 5개작업반 등에 김정일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개최
- 12.12 • 김정일, 황해남도 용연군종합농장 용정분장을 현지지도
- 12.13 • 청진시 송평지구 소재 안전부 발전소 조업식 진행
- 12.14 • 김정일의 승리자동차종합공장 현지지도 1돌 기념보고회 개최
 - 3원26일공장에 대한 2중 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진행
 - 국토관리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강원도 고산군내 인민들에게 김정일의 특별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개최
 - 3대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선교피복공장 제4직장에 3대혁명 붉은기 수여모임 진행
- 12.15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 대한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 12.16 • 김정일이 금성 제1·2고등중학교에 보낸 현대적 교육설비를 전달하는 모임 개최

- 12.17 • 함북 청진시 부령지구 수성천 소재 금강4호 발전소 조업식 진행
 - 원산봉천식료가공공장 및 의약과학원 의약생물학연구소, 2중 3대혁명붉은기·3대혁명붉은기 수여모임 각각 개최
 - 북한 기상수문국-중국기상국 사이에 기상과학기술교류 및 협조에 관한 제10차 회담록 조인(평양)
- 12.18 • 북·중 수력발전이사회 북한측대표단(이사장 한국승) 제52차 회의 참석후 귀환
 - 당일꾼대표단(당부부장 남하일) 중국방문차 평양 출발
 - 중국 기상대표단(부국장 정국광) 평양 출발
- 12.19 • 철도지원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모란관리국·선봉관리국·묘향선박국·고려봉사관리국 등에 김정일감사 전달모임 개최
 - 황북도 신평군 생양협농,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적비 제막식 진행
- 12.20 • 농근맹,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8돌 및 김정숙 82돌 생일 즈음 “김정숙의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따라배워 김정일을 쌀로써 결사옹위 하기”위한 충성의 맹세 모임 개최
 - 함북도 부령군 형제1호발전소 조업식 진행
 - 함북도 경성군, 백두산 3대장군 현지교시판 및 현지말씀판 제막식 진행
 - 조선중앙통신, “지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인민경제 전반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